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음력 6월 7일)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1600호

법원, 총신대 이상원 교수 해임 일시 정지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판결문에서 “채권자가 (강의 중) 한 ‘한문 근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극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그 상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갈증하게 이거 해도 그거를 여성의 성기가 다 받아내게 되어 있고’ 등의 발언은 노골적인 표현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강의를 듣던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했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는 신학을 전공한 신학대학교 교수로서 기독교적 성윤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성적 내용이 담긴 강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성적 내용도 전체 강의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의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의도, 강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지향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채권자의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균형을 잊은 과중한 징계 양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 2번째 징계사유(2차 피해 유발) 관련
또 “채권자가 학생자치회의 대자보를 반박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재하였으나, 이는 문제되는 채권자의 강의에 대한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는 신학을 전공한 신학대학교 교수로서 기독교적 성윤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성적 내용이 담긴 강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또한 채권자가 총학생회 회장

에게 2019년 12월경 몇 차례에 걸쳐, ‘총 학생회가 계제한 대자보로 인하여 채권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은 교수와 제자의 사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당초 총학생회가 채권자의 강의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대자보를 게재하자, 채권자가 그 내용이 자신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나를 판단하고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으로, 이러한 행위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세 번째 징계사유(학내 문란)에 대해
아울러 “제3징계사유는 채권자가 위 대자보를 게제함에 따라 총신대학교 내

부와 외부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것인데, 총신대학교 내부와 외부에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아 이를 채권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채무자(총신대 법인)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따른 경위, 이 사건 해임처분과 관련한 채권자의 태도,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경위, 나아가 채권자가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대학교수로서 인권과 실현의 본질적 부분인 학문의 자유를 상당 부분 제한받고 있는 점, 임용과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성격상 추후 채권자로부터 금전상으로 전보받는 데 한계가 있는 점, 특히 채권자에게는 2020년 2학기가 마지막 학기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권자에게 총신대학교 교수의 지위를 임시로 부여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 교수는 이에 대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았디”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다만 총신대 측의 부당한 결정에 항의하며 자신을 지지해 준 여러 교계 단체들과 총신대 학생 및 졸업생 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교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배려를 보내주셨다. 좋은 결과가 나와 너무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한 목소리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상임대표 전용태 변호사, 이하 진평연)이 창립됐다. 진평연은 498개 단체가 함께 참여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청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뿐만 아니라, 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을 염중히 밝혔다. ▶관련기사2면 ◎노형구 기자

이영훈 목사 “조용기 목사님 빠른 회복 위해 기도를”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설교 중 교회 성도들에게 최근 경미한 노출로 수술을 받은 조용기 원로목사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목사는 26일 주일예배 설교 전 “오늘 특별히 기도 부탁드릴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조용기 원로목사님께서 경미

한 노출로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 이전에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정상적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후 기도하면서도 그는 “사람하는 조용기 원로목사님, 지금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시오니 속히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했다.

한편 조 목사는 지난 22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목

사는 근래 여의도순복음교회 4부 주일 예배에서 설교해 왔으나 이로 인해 이날 설교를 하지 못했다. 김진영 기자

“온라인 예배는 재난상황에 따른 임시방편”

서울신대 조기연 교수, 기성 ‘뉴 노멀’ 세미나서 강조



조기연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세미나 영상 캡쳐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한기재 목사)가 최근 ‘뉴노멀 목회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코로나19 사태와 온라인 예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조기연 교수(서울신대 예배학)는 우선 주일예배를 집에서 드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2세기 순교자 저스틴은 예배에 관해 기록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결석자들에게 성찬의 빵을 가져다 주라고 명하고 있다”며 “이는 예배에 올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했고 그 상황에 놓인 사람을 배려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전 지구적 재난 앞에서 주일예배 모임은 신중해야 한다. 우선 교회는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울고 도와주어야 하며 (롬12:15)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집에서 화면을 보며 참여하는 예배는 예배의 근본적인 의미를 담보할 수 없다. 예배를 뜻하는 단어 ‘레이투르기아’(leitourgia)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예

배는 ‘하나님 백성들의 일’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며 “예배학

서 기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회는 이제부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한 대비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성도들이 지난 몇 주 동안 교회에 나

가지 않고 집에서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함으로써 그 편리함에 맛을 들였거나 심지어 온라인 예배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교회예배의 출석률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공동체는 성도들에게 공동체성, 소속감, 정체성을 주지 못함은 물론 정서적인 만족감과 충족함을 주기에도 한계가 있다”며 “그리므로 교회는 이제부터라도 성도들에게 교회에 모여서 하는 예배가 더 좋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해주어야 하며, 교회에 와서 하는 예배, 교육, 일대일 양육, 친교 등이 온라인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을 체감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 교수는 “아울러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교회는 온라인 영역을 활발히 개척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3,4면 김진영 기자

한국선교KMQ 포럼

“교회 예배 회복이…” 》 7면

개그맨 조래훈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 23면

SKYPOLIS
스카이폴리스

임대케어 서비스

계약금 10% 중도금 무이자 재산세 37.5% 김면 혜택 취득세 50% 김면 혜택 (설립주지 가능)

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이 선보이는
새로운 랜드마크 지식산업센터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5호선 미사역 8월 8일 개통

9호선 하남미사(연장추진)

- 9호선 하남미사 연장추진은 국토교통부가 발표 '광역교통 2030' 비전(2019. 10. 31) 참조 -

지식산업센터 1173실 | 기숙사 392실 | 균형생활시설 400실

분양 문의 010-5618-7343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이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외관 및 생체계획, 침수계획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9년 10월 31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교통 2030' 비전을 참조한 것으로 관계 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모든 사람 평등하게 한다? “가짜뉴스”

진평연, 뉴스앤조이의 가짜뉴스 논쟁에 관한 긴급기자회견

차별금지법 반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상임대표 전용태 변호사, 진평연)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뉴스앤조이의 가짜뉴스 논쟁에 관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법”이라고 했다. 그는 “첫째, 차별금지법(안)은 남성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한다. 양성평등만을 인정하는 헌법 36조에 위배 된다”며 “둘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함으로 동성애 반대 교리를 견지하는 개신교단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교분리라는 헌법 제20조에 위배돼 성직자의 포교의 자유와 신앙 행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셋째, 동성애 비판을 막는 차별금지법은 양심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9조에 위배된다. 대법원 판례는 이미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 행위로 정의했다. 그러나 이법(차별금지법안)에 의해서 사법적 표현마저도 부정당하고 있다. 명백한 위헌”이라며 “넷째, 동성애 교육만을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은 교육의 자주성을 적시한 헌법 31조 4항에 위배된다. 다섯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판하는 모든 기독방송을 포함한 언론, SNS 등이 지난 언론의 자유를 차단한다. 즉 헌법 제21조에 위배 된다”고 했다.

명 교수는 “여섯째, 지나친 과잉 평등 사상으로 헌법 전문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된다. 일곱째, 차별금지법 차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는 해외 사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성애 반대) 노방 설교를 차별금지법에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위반 영역은 굉장히 넓다. 고용·재화·교육·행정 영역 등”이라며 “담임목사가 부목사를 향해서 설교할 때는 고용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 문화공급자 안에도 교회가 포함될 수 있다. 교육에는 신학대가 포함된다. 행정 서비스 안에는 교도소가 포함된다. 차별금지법은 앞선 장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나 ‘동성애 반대 강의’ 모두를 금지한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 성정체성을 이유로 개인 및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재거부 등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법의 지지자들은 ‘특정 개인 및 집단을 차별하지만 않는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전 세계적인 차별금지법 차별 사례를 보면 행위와 행위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동성 간 성행위라는 ‘인간의 행위’를 비난해도 동성애 지지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동성애 반대 설교’를 비난해도 해석 적용한 뒤 처벌하는 게 공통점”이라고 했다.

그는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등이 참여한 ‘2017년 인권위원회 협오실태 조사 보고서’는 개인과 집단을 염두하고 말하지 않은 것도 동성애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동성애에 반대 설교’를 비난해도 해석 적용한 뒤 처벌하는 게 차별행위”라며 “특정인을 비난하지 않았

특히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제보자 불이익 조



498개 단체가 참여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대표 전용태 변호사, 진평연)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뉴스앤조이의 가짜뉴스 논쟁에 관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노형구 기자



명재진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조영길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지영준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치에 따른 징역형도 명시했다”며 “현재

하면 차별금지법안의 ‘직접적 제보자 불대다수 교단 헌법들이 목사나 성도 중 이의 조지’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차별금지법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어 준다는 게 가짜뉴스다. 헌법은 아동·청소년 보호 의무를 명시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여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형법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형법상 모욕죄는 사람에 대한 모욕이 구성 요건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사람의 범위에 특정 집단을 포함시켜 집단에 대한 혐오도 차별대상으로 규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시청 공무원들이 ‘퀴어행사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혐오 표현이라고 결정했다. 이와 같이 시민인권침해구제는 행위에 대한 반대조차 사람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둔갑시켰다”고 했다.

그는 “현재 목사들의 강단설교가 유튜브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을 통해 차별금지법으로 정벌적 손해 배상 위험이 있다”며 “법적 처벌은 형벌 이외에 과태료, 이행강제금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동성애 반대 설교’도 차별금지법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건 가짜뉴스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했다.

전윤성 변호사는 “정의당 차별금지법 안도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제4호와 제5호 불리한 대우 표시 조장 광고 행위로 반동성애 설교를 금지할 수 있다. 문제는 광고행위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점”이라며 “길거리에서 하는 반동성애 구호현수막이 다 적용될 수 있다. 광고법과 공공질서법을 합쳐놓은 게 장혜영 의원 발의안”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 막자” 진평연 창립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히 투쟁”

498개 단체가 참여하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상임대표 전용태 변호사, 이하 진평연)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식을 가졌다.

먼저 전용태 변호사(전평연 상임대표,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는 “진평연에서 추구하는 바는 진정한 평등이다. 지금 인권 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잘 밝혀내서 이를 잘 모르는 사람과 일반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알려 진정한 평등을 이루자는 게 설립 취지”라며 “종교계, 시민계 등과 함께하는 모임이다. 이 모임이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이루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계춘 신부(가톨릭 원로)는 “극소수이자 아주 예외적인 성향인 동성애·동성혼은 망국의 길”이라며 “각자의 자유는 인정할 수 있지만 종교적 신념·양심적 발로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의 표현할 자유를 억압하는 건 잘못됐다”고 했다.

이여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공동대표)는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에 제정하신 남녀라는 창조질서를 허물고 보편적 가치관을 무너뜨린다. 옳고그름, 진리·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위험한 시대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영한 박사(숭실대 명예교수, 기독학술원장)는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강의했다. 김 박사는

“포괄적이라는 단어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첨가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성애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를 인권이라는 범주에 넣을 수 없다. 동성애는 잘못된 성적인 탐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는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꾸려진다. 이것이 허물어지면 사회질서가 무너진다. 윤리적 문제가 있는 동성애를 차별조항에 넣고 포괄적인 범주에 포함하는 건 잘못”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군형법을 제외하고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없다. 동성애에 대해서 법적제도적으로 불리한 처사가 없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양심적으로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비판을 금지하고 징벌적 조항까지 넣는 건

역차별이다. 곧 동성애 독재다. 동성애자들만이 특권을 누리는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모임이 모든 종교와 함께 보편적 윤리를 세우자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진평연은 ‘현법 및 현행 법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도덕을 붕괴시켜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고, 지난 6월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최근 더불어 민주당 일부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장애, 나이, 성별, 피부색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을 막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20개에 가까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gender)에 기반한 성평등으로 개정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좌절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차별금지법(혹은 평등법)을 통해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는 현법 및 현행 법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는 저출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동성 간의 결합, 다자 간의 결합 등을 합법화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며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하여 도박자, 미약자 등 어떤 사람도 인간으로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는 그들의 잘못된 행위조차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진평연은 “2017년 헌법 개정 논의 가운데 현행 헌법 속에 있는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한 양성평등을 사회학적 성

나로 확장하겠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수출길이 막혀 힘드셨나요?

현지 재고관리나 물류인프라 구축이 고민이신가요?

아마존, 알리바바 등 온라인 판매를 위한

현지 풀필먼트 서비스를 원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세계에서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최대 2천만원 한도 현지 물류비용 70% 지원 !!

모집기간 : 연중 수시(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www.kotra.or.kr/biz > 맞춤형 서비스 > 해외물류네트워크

박동찬 목사 “신앙과 삶 분리되지 않는 다음세대 훈련, 이렇게…”

“2020코리아페스티벌, 코로나로 2021년 6월로 잠정 연기, 청년집회로 준비 중”

50인 선교지도자 초청 타겟(TARGET) 2030 전략회의 ‘평창포럼 2020’ 이튿날인 24일 박동찬 일산광립교회 목사(KWMA 난민선교역 실행위원회위원장)가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다음세대 방안’을 발제했다.

일산광립교회 드림트리(중고등부)의 사역 사례 등을 소개한 박동찬 목사는 “다음세대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게 하려면 교회에서부터 훈련해야 한다”며 “보통 교회에서 훈련이라면 봉사를 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대학생, 청년들을 위한 직장설(IT설, 디자인설 등)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학생, 청년들에게 미래 창업을 꿈꾸게 하고 아이템이 생기면 교회에서 창업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카페 등 4개 회사를 창업했고, 잘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목사는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창업은 며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창업한 자리에서 목회자라고 생각하라”고 조언해준다며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과 실생활에 고리감이 있다는 것 아니겠나. 그것을 없애기 위해 ‘너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는 선교사 훈련을 하라’며 ‘너희들은 창업한 그곳의 목회자’라는 인식을 심어준다”고 말했다.

박동찬 목사는 또 어려서부터 가정과 학교, 학원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창의적인 일에 익숙

하지 않은 청년들을 보고, 중고등부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중고등부를 들여다보니 중고등부는 어떻게든 교회에 못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며 “학교는 학년이 올라가면 선생님, 친구들을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바꾸는데, 교회도 똑같다. 학교는 달 수밖에 없지만, 교회는 떠나게 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중고등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의적 접근을 시도하여 1~3학년을 통폐합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주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고 선생님, 친구들을 영입하도록 했다. 그러자 유기견동아리, 헬링온천동아리, 영화동아리 등이 생겼다. 학년 중간이라도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고 좋아하는 선생님 영입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했다. 박 목사는 “예배를 드린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더 머물고 싶어한다”며 “시험 때는 보통 출석률이 40%가 안 됐는데, 지금 저희 교회는 시험 때에도 출석률이 거의 100%”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 좋아하는지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경험해보라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주체가 되면서 나도 세상에 나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하고, 신앙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아이들이 교회에) 와야 신앙교육을 할 수



박동찬 목사가 다음세대 사역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KWMA 영상 캡처

리워한다는 영상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을 움직일 수 있다”며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교회가 사랑한다는 것을 전해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세대가 미래의 잠재적인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영역에서 신앙과 실제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신앙훈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빌리그라함전도협회 주관 2020코리아페스티벌 준비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섭임한 박동찬 목사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이었던 2020코리아페스티벌은 코로나 때문에 내년 6월로 일정 연기했다”고 알렸다. 박 목사는 “행사를 연기하면서 컨셉을 청년집회로 가려고 한다. 잠실 주경기장에서 CCC 등의 다음세대가 10만 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열고, 일회성이 아니라 끝난 후 청년들이 연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달라”로 요청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평창포럼 2020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전략’을 주제로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진행 중이다. 강사, 참가자, 스태프 등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00만 자비랑 선교사 운동 △디자털 미션 플랫폼 △차세대 및 3040 동원 운동 △말씀과 중요기도 운동 △글로벌 미션 네트워크 △선교의 종체적 혁신 등 6가지 아젠다에 대한 50여 명의 강사와 그룹 토론, 합심기도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지희 기자

“차별금지법, ‘차별’과 ‘차이’의 의미 왜곡”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국회 앞 집회 개최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및 시민단체 등 500여 단체가 소속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이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을 반대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정의당 장장혜 의원은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치관을 훼손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도덕적 다수자들의 목소리를 압압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을 옹호하기 때문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차별’과 ‘차이’의 의미를 왜곡하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헌적 정책과 제도로 자유대한민국을 붕괴시킬 위험이 많은 악법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미 대한민국에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해서 개별적

차별금지 규정이 법제화되어 잘 시행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나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결국 동성애(성적지향)를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기 위함임은 수차례의 입법시도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라고 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성별정체성을 인정하게 되면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화장실, 목욕탕 등을 이용할 수 있기에 여성의 안전과 사생활이 위협받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남녀 외에 제3의 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며 “성적지향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 단체에게까지 동성애, 트랜스젠더 채용을 강요하게 될 것이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결국 이 사회는 남녀구분이 없는 성별해체의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동성결혼의 합법화 요구 등으로 우리 사회의 전



피켓팅을 하고 있는 참석자들의 모습. © 노형구 기자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및 시민단체 등 500여 단체가 소속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 24일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결사반대’ 집회를 가졌다. ©노형구 기자

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도민연합은 특히 ‘차별금지법에는 최하 500만 원부터 피해액의 2~5배까지 인정되는 형벌의 의미가 가미된 징벌적 손해배상이 규정되어 있으며,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차별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에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소송비용부담과 더불어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지지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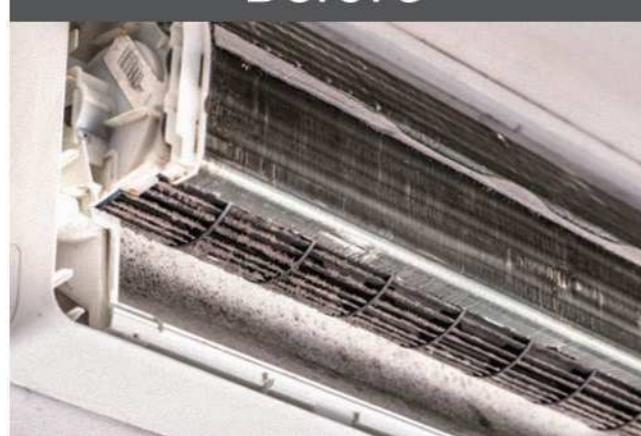
다.

그러면서 “사실상 자신의 양심·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재정적 파탄을 감수해야 하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대다수 국민의 건전한 비판마저도 차별행위로 만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등 여러 종단들과 종력 연대하여 저지할 것을 선포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에어컨 청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Before



After



에어컨 청소를 해야하는 이유!

☒ 에어컨 수명 연장 및 효율 상승!

에어컨에서 더운 공기가 발생하거나, 이상한 소음이 발생하면, 그것은 분명히 에어컨 점검 및 에어컨청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동차를 정비하듯이 에어컨도 정기적으로 점검 및 청소한다면 고장없이 오래도록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

에어컨에 쌓인 먼지 및 이물질 입자는 우리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집이나 회사에 천식 또는 호흡기 질환환자가 있을시 에어컨청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어컨청소로 깨끗한 공기가 실내를 순환하며 모든 사람들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곰팡이 및 불쾌한 냄새 제거!

에어컨의 불쾌한 냄새는 곰팡이 및 박테리아 때문이며, 심지어 죽은 벌레가 죽어 부패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쾌한 냄새는 완전분해 청소만이 원인인자를 완벽히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에코홈케어

문의 010-2661-7562

‘뉴노멀 시대’ 어떻게 목회해야 하나

최동규 교수, 기성 세미나서
‘뉴 패러다임’ 제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한기체 목사)가 24일 오후 ‘뉴노멀 목회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뉴노멀 시대의 목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최동규 교수(서울신대)는 “코로나19 사태의 양면성에 주목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엄청난 공포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삶을 파괴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 현상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했다.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그러면서 그는 교회도 ‘목회 패러다임’에 있어 변화를 주구해야 한다고 했다. 먼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설명 했다. 최 교수는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면서 신자들의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미 기독교계에 ‘사이버 신앙’ ‘온라인 교인’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며 “이는 흔히 말하는 ‘가나안 신자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가상세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목회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무엇보다도 비대면 커뮤

니케이션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IT(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목회 세계에서 IT의 접목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줌(Zoom)이나 ‘구글 미트(Google Meet)’의 사용을 추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가상 세계,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목회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가상 교회’(the virtual church)는 현실 교회를 기반으로 해야 역동성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건물 아닌 사람 중심으로

이어 그는 ‘건물 중심 목회에서 사람 중심 목회로’ 인식을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최 교수는 “건물을 아무리 잘 짓고 유지한다고 해도 거기에 모이는 신자들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건물은 필요하지만 신자들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며 “요즘과 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신자들이 잘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고 했다.

이 밖에 최 교수는 △모이는 교회와 허어지는 교회의 균형 추구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신앙에서 스스로 책임지는 신앙으로 △집단 중심의 목회에서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질적인 목회로 △내적 역동성과 선교적 본질을 회복하는 목회의 균형을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으로 제시 했다.

◆‘목사 의존적’ 패턴에서 탈피



최동규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세미나 영상 캡처

특히 그는 ‘목사의 역할’에 주목했다. 최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목회자들에게서 할 일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전에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았다”며 “각종 예배, 기도회, 회의, 교육, 심방, 관호상제와 관련된 행사 등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넘치고도 넘쳤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모두 대면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이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목회자가 할 일에 대 폭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이후의 목회 환경에서 목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하다”며 “과거에는 모든 것을

이런 방식으로는 신자들이 제대로 신앙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은혜를 받고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실제로 성경이 강조하는 진정한 신앙의 양상이 이런 것이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떠나 장성한 어른의 신앙을 가질 것을 권하고 있으며, 젖만 먹는 신앙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사의 역할은 이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목회 환경에서 목사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목회 구조를 재편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진정한 중생과 성결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그룹과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누가 우리 교회 ‘교인’인가?

그는 또 교회 ‘멤버십’도 재검토 될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비대면 시대에 혼자 예배에 나오지 않는 신자들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인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현금만 송금하면 신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그는 “멤버십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교회공동체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교회공동체 개념은 단지 대면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비대면이 뉴노멀이 된 사회에서는 ‘교회공동체 개념을 확대해서 공동체성을 정서적·인격적·관계적 연대가 가능한 모든 공간으로 확대하는 유연한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김승환 「한국교회의 예배 변화 전망」 41p)”고 했다.

◆“낡은 가치와 패러다임 과감히 버리고”

골로 죠 최 교수는 “어쩌면 이 시대에 닥친 재앙은 우리에게 위기이면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가치와 패러다임의 변화다. 자기를 성찰하고 혁신에 맞지 않는 낡은 가치와 패러다임을 과감히 버리고 우리 자신을 혁신할 수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리라 믿는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은 금방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김진수 기자

“교회, 바이러스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다가가야”

하도균 교수, ‘뉴노멀 목회 패러다임’ 세미나서 발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한기체 목사)가 24일 오후 ‘뉴노멀 목회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하도균 교수(서울신학대학원 전도학)가 ‘코로나 19 이후, 뉴노멀 시대의 복음 전도’에 대해 강의했다.

하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충격적인 영향을 끼치는 팬데믹 현상이 됐다. 이제는 ‘지구촌’ 전 세계는 하나다’라는 문구가 어색하리만큼 격리된 사회에서 살게 되었고,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나라와 나라를 이동하는데 제한을 가진 시대가 됐다”며 “언어와 생활이 하나였던 인류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달라져 소통이 되지 않아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이야기가 떠오르며,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하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복음 전도는 어떻게 가능하고,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회의 정체성을 점검해야 한다.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종말론적인 공동체라는 사실과 그 안에 담겨있는 영생에 관한 내용으로 재무장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정체성을 점검하고 본질을 회복하여 교회나 위칠 수 있다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치치고 소외와 격리로 지쳐 의존할 곳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의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준비해야 한다. 어려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격리되어 소외되고 일자리를 잃어버려 삶이 밀 바닥일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소망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그래서 세상에 전해줄 메시지를 준비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서 영원을 그리워하고 경험하고자 소리치는 그들의 영적인 외침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원을 그리워하는 영혼의 외침에 귀 기울이며 교회 공동체가 반응해 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하 교수는 “비Grace도인 들을 단도직입적으로 교회로 전도하기보다는, 소위 완충 지역을 만들어 세상에 있



하도균 교수(서울신학대학원 전도학)가 ‘코로나 19 이후, 뉴노멀 시대의 복음 전도’에 대해 강의했다. ©온라인 세미나 영상 캡처

던 삶의 모습 속에서 거부감이나, 충격 없이 교회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완충 지역을 ‘양육그룹’이라고 호칭할 수 있겠다”며 “양육그룹은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공적인 영향력이 필요해지고 더욱 소외감을 가진, 그러나 교회와는 더 거리를 두고 있는 세상에 다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그들에게 신앙을 갖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양육그룹은 ‘공동체 중심의 사랑실천과 초대 교제 속에서 복음 공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라는 형식을 취한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양육그룹을 만들어 접촉하고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복음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람을 실천하여 복음에 관심을 보이도록 하고, 그 후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돋는다”고 했다.

그는 또 “교회 안의 작은 교회(ecclesiae in ecclesia) 운동이 교회 간신과 부흥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오늘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교회 안의 사이버 교회(Cyber Church in Local Church)’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이버교회는 독립된 교회처럼 전단 사역자를 임명해 운영해야 한다. 또, 사이버교회에서는 세상과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다양한 소그룹 형태의 모임이 운영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教会 안의 작은 교회(ecclesiae in ecclesia) 운동이 교회 간신과 부흥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오늘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교회 안의 사이버 교회(Cyber Church in Local Church)’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이버교회는 독립된 교회처럼 전단 사역자를 임명해 운영해야 한다. 또, 사이버교회에서는 세상과 접触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다양한 소그룹 형태의 모임이 운영될 수 있다”고 했다.

하 교수는 “사이버교회는 세상과 가나안 성도들만을 위한 장(場)은 아니다. 기존 신자들이 들어와서 신앙에 도움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여 한다”며 “이를 위하여 신앙의 정도에 따른 모임을 2~3개 정도 만들 필요가 있다. 사이버교회에서 반응하고 호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이버교회 사역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역교회로 인도하여 정착하게 해주어야 한다. 성급하면 안 되며 다만, 반

[준법감시필 2020-1353]

삼성생명 SAMSUNG

내 보험 바로 알기 캠페인

지금 바로
담당 컨설턴트에게 문의하세요!

고객님이 가입하신 보험상품을
보다 쉽고 꼼꼼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담당 컨설턴트 또는 삼성생명 클센터 (1588-3114)로 문의하세요!



컨설턴트 칭찬 이벤트! [7월 31일까지]

내 보험을 설명해준 컨설턴트를 칭찬해주시면 추첨(1등, 2등) 또는 선착순(3등)으로 경품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 #8080(발신자부담 100원)으로
칭찬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발신 내용 : 고객님 성함 / 담당 컨설턴트
성명 및 코드 / 칭찬 내용

예시)

홍길동 / 김삼성 컨설턴트 (코드 123456)
기인상품에 대해 칭찬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1등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5명
2등 신세계상품권 3만원권 500명
3등 CU편의점 2천원 상품권 선착순 100,000명



* 1~2등 당첨 결과는 8월 3일, 3등은 참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차주 중 발신 핸드폰번호로 전송됩니다. 당첨된 경품은 현금으로 환불이 불가하고 제세공과금은 삼성생명이 부담합니다.(기타 추가비용 없음)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돋우기 위한 이미지(이미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전민수 기자

다니엘 김 선교사 “주님 만나고 즉각 해결된 두 가지는…”

유튜브 채널 'JG CHANNEL'이 최근 '비전, 사명, 진로의 진짜 의미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영상에서 다니엘 김 선교사는 "복음을 만나고 나서 '사춘기와 '진로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했다.

다니엘 김 선교사는 중학교 1학년 때 뜨겁게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문제 두 가지 첫 번째는 '사춘기' 두 번째는 '진로 문제'"라고 했다.

그는 "사춘기에 겪는 문제인 '나는 어디에서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모든 문제가 복음 안에 해결되기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했다.

이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진로 문제 가 있을 수 없다. 진짜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다니엘 김 선교사 ©유튜브 영상 캡처

주를 위해 죽겠다는 고백이 터져 나오며 진로 문제를 해결된다. 진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비전, 사명, 역할"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대한민국 교회에서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선교사는 "우리가 '위대한 비전을 가져라' 할 때 의사, 변호사, 선교사가 되는 것이 비전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에선 이 비전을 단 한 번도 나의 꿈과 연관 지어서 사용된 적이 없다. 성경에서 비전이란 단어는 딱 한 가지 용도 'the

revelation of God(여호와 하나님의 묵시)'로 사용한다"며 "즉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계신 주님의 관점, '태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사건', '주님의 경영'을 뜻한다"고 했다.

이어 "주님의 비전이란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죄와 죽음이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릎 꿇는 것', '온 열방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으로 둘어는 것',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공유하기 때문에 목사와 평신도는 똑같은 비전을 갖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나온 것이 사명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영역이 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죄와 싸우되 꾀 터지기까지 싸우는 것', '온 열방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으로 둘어기 위해 주님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이라며 "그 비전에

서 나온 사명은 목사나 평신도다 똑같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인 역할은 다를 수 있다. 목사는 선교사든 학생이든 하나님께서 예시면 가고, 닫으으면 가지 않고, 있으라면 있으면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영향력을 극대화해 하루빨리 나의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에게 선교사님 언제 헌신하셨습니까? 묻는데 헌신한 적 없다.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루빨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진로가 된 것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나의 영향력을 극대화해서 복음의 진보에 도움될 수 있는 역할로 선교사를 하는 것이고, 어느 날 선교사로서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선교사를 안 해도 괜찮다"고 했다.

김 선교사는 "문제는 이게 정리되지 않 은 상태로 선교사를 갔다가 주방당하고, 천양사역자란 사명을 가졌는데 더 이상 찬양을 부를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전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역할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나의 영향력을 극대화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하루빨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며 "진로문제는 해결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님과 관심이 하나가 되면 의사, 변호사 될지 고민할 필요 없고, 원하시는 걸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예시면 가고, 닫으으면 안 가면 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직업이 아니라 같은 관심을 공유하는 것이다.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눈물, 같은 생각, 같은 사역의 방법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 무엇을 하든 주님의 방법으로 살게 되어 있다.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시는 형상으로 인도 하실 것"이라고 했다.

황지현 기자

홍민기 목사 “코로나 시대에도 불변하는 것은…”

최근 삼일교회
특별새벽기도회 설교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대표)가 지난 23일 삼일교회(송태근 목사) 특별새벽기도회에서 '근심 말고 믿음(요14:1~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홍 목사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시작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고 하는 것 같았다"며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어 "그럼으로 우리들의 인생은 길 위에 있는 인생이다"며 "우리의 인생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인생이 아니며 우리의 인생은 전국까지 가기 위해 길 위에 있다. 이 길은 예수이자 전리여야 하며, 가짜나 거짓이여서는 안 된다. 예수의 길 위에 있으면 괜찮다"고 했다.

또 "주님은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위대한 믿음, 능력, 역사를 간구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품 잡기 위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붙어 있어라. 길 위에 있으라고 하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도 어떠한 일들이 돌아가는데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말씀에 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언어가 거룩해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변화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이라며 "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는 한 기도 또는 예배를 드려도 예수를 붙잡고 사는 것은 아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이 세상의 것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여도 하나님에게 가장 귀하지 않거나 하나님도 귀하면서 다른 것도 귀하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 이 아니다"며 " 예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만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풀리고 해결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라 고 덧붙였다.

그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 그리고 임제하심과 행하신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나는 죽고 주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다. 나의 앞길을 알 수 없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며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주세요'고 많은가 아니면 '됐어요'가 많은가?"라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근심하지 않는 자로 살려면 가치관이 바로 서야 한다. 가치관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예수의 임재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고쳐지고 다시 주를 붙잡아야 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성도가 이 땅에 필요하겠는가?"라며 "매번 같은 문제로 쓰러지고 고민하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과 그 체험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이번의 문제에도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말씀드릴지로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제가 잘해 볼게요. 이번엔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괜

찮아요'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악한 사탄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더러운 마귀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잊게 하는 것에 집중한다"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바쁘고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긴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은 '내일을 염려하지마라. 집중해야 할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이다'고 말한다"고 했다.

홍 목사는 "우리는 가치 없는 많은 것에 시간을 쏟고 있다. 성경은 일반 악의 뿐이 돈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 물질을 넘치게 채워 주시면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힘 있고 품 잡으며 나타나는 것을 좋아한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는 매일같이 근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주님을 알고 있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지, 우리의 갈망함이 정말 주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향한 것인지, 내 마음과 인생이 힘들어 주를 붙잡는 것인지 아니면 주께서 하나님하시기 때문에 붙잡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때때로 "소모임을 통해 고단함과 신앙의 부족함을 나누면서 마치 세상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대상이며 그것이 기독교적인 것으로 오해를 한다"며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3일 후에 모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 승리하신 목자가 우리의 목자이시다. 그리고 나의 능력과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능력, 역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면서 "말로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며

"이 길 위에서 있는 모든 인생들이 진리의 길 위에서 생명까지 반드시 도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뉴노멀의 시대, 어떠한 코로나의 시대가 와도 불변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며 그림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며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가치를 둘으로 근심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홍민기 목사가 삼일교회 특별새벽기도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아빠가 그랬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아빠가 만든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다먹고 다이어트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다먹고다이어트와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 시작!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1,200mg 함유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분을 위해 설계된 단수화물이
자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

건강한 한국여성의 질에 찾은 특허유산균
이너밸런스, 장까지 더 건강하게! 7종 유산균이 이로운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원활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장 끝까지 살아가는 식물성 친환경 SP 코팅
담즙산, 위산에도 꽉꽉 들키히 받은 코팅 기술로 장내 생존율이
매우 우수하여 유산균을 끝까지 확실하게 전달

5가지 무첨가
착색료, 합성향료, 감미료, 스테아린산나트륨, 이산화규소 무첨가

영국산 비타민C 30mg

식이조절과 다이어트로 균형잡힌 식사가 어려울 때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가격까지 짹~ 짹~ 빼드리는 아람비스토어
2개월치 구입하면 1개월치가 공짜! 그리고 추가할인까지!
2개월치+1개월치 = 165,000원 - 99,000원
500세트 한정으로 조기 품절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제조원: (주)에디오션 *판매원: (주)소화소

“교회 예배 회복, 복음의 자신감 회복이 선교와 동원의 회복 이뤄”

2020 한국선교KMQ 포럼 ‘선교와 동원’ 주제로 열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흐름 앞에서 한국선교와 동원 방안을 논의하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0 한국선교KMQ 포럼이 최근 여의도 켄싱턴호텔 15층 센트럴파크에서 열렸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주최, 한국선교KMQ가 주관하고 온누리교회가 후원한 이번 포럼은 ‘선교와 동원’을 주제로 총 3개 세션에서 발표와 질의응답, 토론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KMQ 편집인 성남용 목사(삼광교회, 총신대학신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교회 예배 회복이 선교의 회복이고, 복음의 자신감 회복이 바로 선교의 회복”이라며 “동원을 회복하려면 교회가 복음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우리도 예수만이 길이라는 자신감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에서 다음세대 선교 동원도 중요하나, 이보다 10배 더 중요한 선교 동원의 수원지는 선교지”라며 “이를 위해 선교사와 단체들이 전략적으로 연합해야 하고, 선교사역과 선교 행정을 분업화, 전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배는 김종구 빌리온선교회 대표의 사회로 온누리교회 2000선교본부 본부장 김홍주 목사의 설교, 나성균 KWMA

운영이사의 축도로 드려졌다. 김홍주 목사는 “코비드19로 많은 선교활동이 멈춰 있다. 선교사들 중 많은 분이 귀국하고, 현지에 남아 있더라도 활동을 멈추고 집에만 머무르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약간의 긴급구호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저희 교회도 해마다 3천5백 여 명의 성도님이 해외 단기선교, 5천~6천 명의 성도님이 국내 단기선교를 나갔는데 올해는 국내외 일찌감치 전면 중단했다. 내년에도 해외로 성도님들이 나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라며 “이 때 우리는 멈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행상 멈추지 못한 것을 멈추면서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킬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비드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므로, 우리도 멈추지 않고 일해야 한다”면서 “우리를 성찰하고 한국교회 동원을 하심만 회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오전 세션I에서는 김연수 스토리텔링에 대해 발표했다. 세션II에서는 송동호



2020 한국선교KMQ 포럼 참석자 단체사진. ©한국선교KMQ

사역연구소 대표의 사회로 김미가 GO선교회 본부장이 ‘한국의 선교운동’, 이대행 선교한국 상임위원장이 ‘청년 선교 동원_선교한국 운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후 세션III에서는 김아영 햇불트리니티 교수(한국이슬람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엄상섭 JDM 한국대표가 ‘대학생선교단체의 해외선교동원 JDM을 중심으로’로, 서근석 고신훈련국장이 ‘교단 선교부의 동원_고신 교단 안에 차세대 선교 동원’, 소영섭 바울선교회 연구소장이 ‘청년 동원을 위한 선교 단체의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세션III에서는 송동호

나우마션 대표의 사회로 서동찬 한반도 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선교 동원의 구조와 전략’, 전은표 카이로스 동원전략디렉터가 ‘선교 동원에서 동행으로_청년총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강승삼 KMQ 명예이사장의 사회로 질의응답, 조용중 KWMA 사무총장의 총평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선교 동원을 위한 선교단체와 교회의 역할 재고, 작은 교회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선교사 파송 방안, 미디어 선교를 위한 연합 콘텐츠 구성, 변화된 선교 현장에 적합한 사역자 연결 및 지원

일로 주일학교 공과 기편, 선교장학금 제도를 통해 아릴 때부터 다음세대가 선교에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안과 목회자들의 선교 인식을 깨우기 위한 목회자 선교교실 운영이 언급됐다. 장기적 방안으로 신학교육에서 선교 커리큘럼을 보완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조용중 사무총장은 “2006년 시작된 타겟2030 운동의 역사 계승을 하는 뜻에서 문자적 수정보다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역사는 단절되는 것보다 계승이 좋다. 코비드19시대에 우리의 선교운동에서 좋았던 부분을 되새기고, 우리의 단점으로 생각한 부분은 철저히 평가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또 “동원의 의미가 선교사 파송 숫자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자원을 종체적으로 활용하시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하는 좀 더 포괄적인 뜻을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너무 숫자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국교회 전체와 세계교회 선교 동원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 한국선교KMQ 포럼에서는 선교와 세속화를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지희 기자

FIM 국제선교회 이슬람선교학교 성황리 마쳐

이슬람 선교 준비하는
15명 수료생 배출



FIM 이슬람선교학교 인тен시브 수료생과 강사 단체사진. ©FIM 국제선교회

눈물이 났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 다른 수료자는 “이번 선교학교를 통하여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나타났고, 세미나 강사 및 FIM 국제선교회 모든 선교사님 안에 빛나는 주님의 영광의 복음이 드러나서 좋았다”고 말했다.

FIM 국제선교회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인터뷰를 통하여 이슬람 선교를 준비하는 15명으로 수강인원을 제한했다”며 “정부 방역방침을 절저하게 지키며 평소보다 축소된 훈련을 진행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FIM이슬람선교학교는 이슬람에 대한 이해와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이슬람권 사역을 준비하는 선교사들에게 유용한 훈련과정이다. 특히 한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개혁주의적 대안을 한국교회에 제시하는 훈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지희 기자

선교편지 COVID-19로 달라진 싱가포르와 태국 선교 변화

COVID-19 팬데믹 이후 온 세상이 매우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창이공항 제 2경기를 1년 반 동안 문을 닫기로 하였고, 의료, 행정, 교통, 호카(식당) 등 기본적인 직종을 제외하고 모든 직장이 재택근무로 들어갔습니다. 다수의 실직자가 나오자 싱가포르 정부는 팬데믹 이후에 필요한 직업 창출을 위해 직업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교회들은 회집을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영상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캔디파드교회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영상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태국인 남자 성도들은 대부분이 노동자인데 기숙사에 갇혀 지내며 빠르게 번지는 COVID-19에 감염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캔디파드교회의 자비사역팀은 때를 따라 태국 형제들을 방문하고 음식과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하면서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나내 이명국 선교사는 지난 2월에 태국을 방문하여 캔센에서 머물며 사역 하던 중 갑작스러운 COVID-19 상황으로 항공편이 취소되고 이동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현재 6개월째 태국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감사한 것은 영상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성도들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태국의 쌔마카, 차이베태, 우텐 성도들이 연결되었고, 미국의 우타

이 성도, 영국의 미야오 성도, 이탈리아의 민 성도, 독일의 리안하트 박사 등이 연락되어 함께 영상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이 지나가면 교회와 선교의 모습은 이전과는 매우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 예상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집에서 드리는 영상예배에 익숙해져서 계속 온라인예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예배 출석과 아

울려 현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교회 경상비와 선교비에도 많은 변화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눈앞에 두고 선교지의 모든 동역자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기독제목

▶주님께서 각 선교지와 한국교회를 지켜주시도록

▶싱가포르 캔디파드교회의 남자 노무자 성도들과 국제결혼 한 여성도들이 영상 예배를 통해 믿음이 잘 자라가도록

▶싱가포르인 성도들이 예배 영상 편집, 통역과 음식물 전달 등으로 헌신하는데 주님께서 지기시고 귀하게 쓰임 받도록

▶태국 귀국한 성도와 해외에 흘러진 태국인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믿음 가운데 잘 자라도록 김정배, 이명국 선교사

OPEN EVENT

라파로페가 홈페이지 리뉴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회원가입하시고
적립금과 선물 받아가세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보러가기▼

www.rafarophesoap.com
(라파로페 리뉴얼 쇼핑몰)

01
회원가입시
10,000원 적립금 지급

02
첫구매시 선물 증정!



전화번호 043-900-0367 / 010-7767-0388 / 010-6410-0377
본사 및 연구소 | (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벤처연구센터 기업연구관 2동 605호/408호
제조공장 | (28171)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길 38 충청대학 R동 117호

무슬림 지도자 “성소피아 모스크 전환 계획 재고해달라”

무슬림 지도자들이 터키의 성소피아(Hagia Sophia) 성당을 모스크로 전환하는 계획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고 22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비잔틴 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는 이 성당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성당은 326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새로운 수도 콘스탄티노폴을 건설하면서 건립되었으며 537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 재건되었다.

1453년 콘스탄티노폴이 오스만 제국에 합락되기 전까지 성소피아 대성당은 약 1천년 간 동방정교회의 본산이었다. 1934년 아래 강력한 세속주의 아래 성소피아는 박물관으로 전환됐고 이제는 다시 모스크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대해 ‘인간의 형제애 고등위원회(HCHF) 사무총장인 모하메드 압델 살람(Mohamed Abdel Salam) 판사는 “성소피아 성당을 둘러싼 모든 결정은 분열이 되는 원인을 피해야 하며, 모든 종교 간

상호존중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델 살람 판사는 최근 세계교회협회(WCC) 임시총무인 요한 사우카(Ioan Sauca) 박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HCHF는 모든 사람에게 종교 간 대화와 문화 간 의사소통을 훼손하고 긴장과 증오를 유발할 수 있는 조치를 피하도록 요청한다”면서 “다른 종교를 추종하더라도 공존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전 인류의 필요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HCHF는 예배 장소가 신자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분리와 차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사우카 박사는 이날 초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성소피아 대성당을 모스크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카 박사는 “성소피아를 회교 사원

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터키의 개방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뒤집어 배제와 분열의 신호로 바꾸었다”면서 “성소피아 성당과 같은 상징적인 장소를 박물관에서 회교 사원으로 개조하기로 한 결정은 필연적으로 불확실성과 의혹, 불신을 야기 할 것이다. 대화와 협력으로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종교인을 한데 모으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네바에 소재한 무슬림 재단 양뜨레

조네상스(de l' Entre-Connaissance)의 하피드 콰다리 디레터 또한 사우카 박사의 자작에 “완전한 지지”를 표한다는 서한을 WCC에 보냈다.

그는 “전 세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무슬림으로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터키의 아야 소피아(Hagia Sofia)를 위해 기도한다”면서 “지난 1934년 이후 지속해온 것처럼 항상 인류의 지식, 빛, 지혜, 평화의 교차로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美, 中해커 2명 기소… “가정교회 목사 이메일도 해킹”

코로나19 백신 연구와 관련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당한 중국인 해커 2명이 과거 가정교회 목회사의 개인 이메일을 해킹하고 공산당 관리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케리 쿠페 미 법무부 대변인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두 명의 중국 해커들이 전 세계 기업들에게 수억 달러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들을 중국 정보국에 넘겼다고 보고했다.

케리 쿠페 대변인은 “예를 들어, 중국 정부가 기독교 가정교회를 폐쇄한 지 일주일 만에 이 두 명의 해커는 해당 목회사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고 이메일을 수집해 중국 정부에 제출했다. 중국 정부는 그 목사를 제포했다”면서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상당히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미 법무부는 10년이 넘는 대



중국인 해커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케리 쿠페 미 법무부 대변인. ©폭스뉴스 영상 캡처
규모 글로벌 해킹 작전에 관여한 중국인 인권활동가 등의 데이터를 중국 국가안전부(MSS)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등을 해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국가안전부에 홍콩 시민사회 활동가, 시안 기독교 목사, 전 천안문 광장 시위자, 반등지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목회자,

체제 인사들의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넘겼다. 이들은 중국 가정교회 목사의 이메일도 해킹했는데 이메일 소유자인 목사는 곧 중국 정부에 의해 체포됐다. 용의자들은 또 홍콩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옹호한 미국인 교수와 시민운동가, 캐나다인 2명의 이메일 계정도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이 지금까지 빼돌린 기업정보의 가치는 수억달러에 이른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첨단 기술 회사에서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훔쳤다고 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12개가 넘는 미국의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회사 네트워크를 목표로 삼았다. 두 사람은 최근 백신 치료와 테스트 기술 연구로 잘 알려진 생명공학 기업의 네트워크 취약점을 조사하기도 했다고 공소장은 설명했다. 이미경 기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코로나19 재건에 여성 참여해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 문제 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 23일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여성들이 ‘코로나 재건’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며 ‘코비드-19와 여성 인권을 주제로 지난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패널 토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토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자가격리와 학교 폐쇄, 이동 제한 등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들이 성에 기반한

폭력의 급격한 증가에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과부하 상태인 보건체계, 자원의 재분배, 의료공급 부족, 세계 공급망 붕괴가 출산과 질병 관련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폐기 히스 국장은 코로나 국면에서 “여성과 소녀들은 본질적인 취약성 때문이 아닌 기존의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더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팬데믹 내의 팬데믹’으로 일컬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여성들이

들의 경제활동 또한 크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의료 종사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 생산과 공급망, 청소와 세탁, 돌봄 업무 등 필수 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많은 여성은 저임금과 비정규직,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인 비공식 영역에서 일하고 있으며, 숙박, 제조, 소매, 오락 등 코로나 여파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종사한다”면서 “임금 격차와 가사노동 불균형 등 기존의 성별 간 불평등으로 인해 코로나 국면은 물론 이후에도 여성이 노동시장 참여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토마스 오하야 퀸타나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유엔 인권 이사회에 코로나로 인한 북한 내 인권 악화 우려와 북한 여성의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에서 여성은 인구의 51.1%를 차지하지만 고위 정치적 의사결정 기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다”면서 “북한에서 여성은 교육이나 구직에서 차별을 당하고, 가정폭력이나 성 폭력, 성 착취의 위험에도 쉽게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에콰도르 빙곤계층에게 원격진료는 생명줄 같아”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350만명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병원 방문은 원하지 않는 위험요소가 되었다.

22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병원 방문을 결정하더라도 수도인 키토(Quito)와 에콰도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과야킬(Guayaquil)에 소재한 공립 병원은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다. 도시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지역 사회 병원에는 소수의 병상만 설치됐으며 익스레이 시설조차 없다고 한다.

거주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 접근하는 것조차 보트를 타고 이틀간 여행을 해야 가능한 사람들도 있다. 빙곤계층의 경우 병원에 갈 재정과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기독교 아동 후원 단체인 컴패션 에콰도르는 후원하는 어린이와 그 가족을 돋보기 위해 전화를 사용하는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최근 컴패션에서 출시한 새로운 원격 건강관리 시스템은 병원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에 중요한 생명줄과 같다. 이 시스템은 컴패션의 어린이 후원자였던 한 의료진의 자발적인 작업으로 시작됐다.

컴패션 에콰도르 식스토 감보아 국장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훌륭한 의사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의사와 간호사가 되었다. 너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의사이자 전 컴패션 후원자였던 이네스(Inés)는 “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우



전화로 의료상담을 하고 있는 닥터 이네스. ©컴패션 에콰도르

리가 서로를 지원하고 모든 어린이와 가정에 축복이 되어야 할 때”라고 했다.

컴패션에 따르면 3백여 가정이 의료 핫라인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아비아(Avia)는 두 살 된 아들 칼립이 열이 나고 구토를 시작했을 때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했다. 아비아는 컴패션 교회 협력자에게 핫라인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아비아는 “집 근처에 의사가 없어서 두려웠지만 의료진에 전화를 했을 때 약을 처방해줬다. 짧은 시간에 아들의 상태가 호전됐다”고 말했다.

마리아의 아들 엘리아스(Elias)는 인후통과 기침 증상을 보여 핫라인으로 의사에 연락했을 때 심각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처방을 받고 아들의 증상은 호전됐다. 마리아는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컴패션 에콰도르 측은 펜데믹 기간 동안 더 많은 어린이를 위해 의료진 숫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12년만에 첫 공급! 세운상가 재개발, 서울대병원 바로 앞 오피스텔 특별분양



1차 분양완료



2020년 6월17일 정부에서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0.5%인하하면서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들면서 매매가격이 급상승해 정부에서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울도심권 오피스텔은 반사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도 입지가 탁월한 “종로루비온 오피스텔”은 반경 300m내에 지하철1, 2, 3, 5호선 이용 가능하다. Quadruple(쿼드플러) 역세권에 위치한 당현장은 “지상 14층 규모” 단일타입 총 181실의 오피스텔과 지하 1층, 지상 1층의 균린생활시설로 이뤄져 있다. 주변 세운6구역, 세운3구역, 세운5구역이 개발을 시작했다.

* 초기 인테리어는 소비자에게 즐기 허용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당현장의 경우 세운4구역, 세운2구역, 을 도로나 사이로 두고 있어 세운지구재개발 수혜지로 가치가 급격히 치솟고 있다.

주변에는 대기업, 제약회사, 관공서, 외국계금융회사, 페션종사자, 서울대학병원 등 임대수요가 365일 대기하는 지역으로 대한민국 임대1순위 지역으로 공실걱정이 없다. 이러한 연유로 365일 매일内外국인 관광객들의 수요가 많고, 광장시장, 동대문 패션타운, 종로보석상가 등 편의시설이 산재해 있는 등 인근에 약 17만 명의 염청난 배후수요가 자리하고 있다.

이번 6.17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선포되어 주택담보대출은 3억이상의 주택을 구입시 대출이 불가하다. 그래서 자금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수 있어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종로, 을지로 일대 오피스텔은 임대료가 보증금1천 ~ 5천만원 / 월세80~180만원대로 전용면적과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고 주목할점은 공실이 없고 대기수요가 풍부하다는 점이다. 당현장은 종로, 을지로, 세운재개발지구 등에 분양하는 일대 오피스텔 중 분양금액이 제일 낮게 책정되어 있다. 세운재개발지구가 완료될시 최첨단 업무지구가 형성되어 대기업 및 외국계회사등이 이전계획을 확정하였고 관련회사들도 줄줄이 이전될것으로 보이고 관련직원만 5만명이 상주하게 된다.

입주는 2021년 10월 예정으로 현장공사가 진행중이고 계약금 10%, 중도금 60%무이자, 잔금 30%이다. 입주시까지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전용대출 60~70%까지 가능하고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한다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조기마감이 예상되므로 사전문의가 꼭 필요하다.

6·17 부동산대책 제외 1가구 2주택 제외

서울 세운4구역 재개발 직접 수혜지

서울대병원 창경궁, 종묘공원 앞 지하철 1, 2, 3, 5호선

대기업, 제약사, 금융사, 대학병원, 공무원 등 풍부한 임대수요

문의 1811-7703

美대선후보 조 바이든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종교 더 가르쳐야”

오는 11월 미국 대선 100일을 남겨놓고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사진) 간의 대선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이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슬람 단체가 주최한 한 행사에서 학교들이 이 이슬람 종교에 대해 더 가르치길 원하며, 미국을 재건하는 과정에 무슬림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 을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20일 무슬림권리운동 시민 단체 ‘엠게이지 액션’(Engage Action)이 주최한 원격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무



슬립게 미국민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며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백만 무슬림 투표운동’이란 타이틀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는 무슬림 유권자의 표를 집결하고자 마련됐다.

바이든은 “학교에서 이슬람 신앙에 대해 더 가르치길 원한다”며 “이슬람은 위대한 고백 신앙 중 하나이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우리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기초 신념들(beliefs)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말

이다. 오는 11월에 (당신들을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회 약속을 쥐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공립고등학교 수업에 이슬람 관련 과목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경우 중등학교 사회과목에서 이슬람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바이든의 발언은 이슬람 종교에 대해 지금보다도 더 많이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 매체는 전했다. 아울러 바이든은 “당선되는 첫날 즉시 특정 이슬람 국가들의 여행객들을 입국 금지 시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반드시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vile)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7년 무슬림 테러 리스트의 유입을 막고 미국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이란과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의 국민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어 그는 “무슬림계 국민의 목소리를 우리 지역 사회나 미국 전체를 위해 소중하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는 제대로 인정받거나 반영되지 못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미국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무슬림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포비

아이슬람 공포증)를 지닌 사람들을 국방부와 국제개발처의 핵심 리더십으로 세웠다”고 비판하며 “이는 우리가 지닌 가치에 대한 모독이며, 전 세계 내에 우리의 입지를 악화시킨다. 과연 다른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이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전 세계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과격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에 관해선 바이든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지적했다.

이날 엠게이지 액션 측은 “미국 내 주요 접경지역 주마다 무슬림 유권자들의 표를 최대한 동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선출직 고위직에 진출한 무슬림계 정치

인들의 편지 보내기 운동을 통해 무슬림 유권자들에게 바이든 지지를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 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종교(교회)는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무엇보다 (교회 관련해) 명령하지 않고, 과격한 좌파 진영에 연락할 것”이라며 더 자세히 말해달라는 앵커의 주문에 “지금 그들이 교회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라. 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Six Feet Apart)를 원한다면 교회조차 열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혜 기자

동남아 기독교인들 정부 긴급 원조 명단서 제외… 생활고 극심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의 여파로 동남아 시아와 수단의 기독교인들이 당국의 명령에 따라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긴급 원조 지원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오픈도어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인도, 수단, 말레이시아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계속 받고 있다. 오픈도어 인터내셔널의 아시아 담당이사인 얀 베르메르(Jan Vermeer)는 프리미어 뉴스를 통해 “지역사회가 그들의 원래 종교로 되돌아올 경우에만 음식을 제공해 준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제보들로 넘쳐난다”고 말했다.

현지 상황에 대해 그는 “여전히 사람들은 그들 나라의 지배적인 종교로 되돌아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살까지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오픈도어 동남아시아 부서의 샘(Sam)

목사는 방글라데시의 시골 마을의 경우, 지방 정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특별히 이슬람교나 불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샘 목사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단이 없으면 죽거나 다시 이슬람으로 개종할 수도 있다”면서 “이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오픈도어의 지원이 없었다면 많은 기독교인들은 영양 실조나 기아로 사망하거나 예수를 따르는 것을 너무나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도어에 따르면, 수단에서도 코로나 봉쇄 조치 기간에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거부하고 이슬람으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굶주림과 노숙 생활에 직면하게 된다. 수단의 한 지역 목회자의 제보에 따르면 무슬림 출신 기독교인들은 신앙 문제로 가족이나 부족, 지역 사회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며 전적으로

차별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봉쇄 조치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신세에 처해 있다. 그는 “기독교 개종자들이 이슬람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이 이슬람 공동체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고 말한다. 이것은 비극이다”고 말했다.

동밀레이시아에서도 한 기독교인 학생 그룹이 지역 이슬람 사원으로부터 봉쇄 기간 동안 지역 사회의 식량 지원을 받으려면 다시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오픈도어는 설명했다.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는 지방 정부가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한 107명의 기독교인 가족들에 대한 식량 지원을 거부하며 “너는 기독교인이고 네 하나님께 너희 가족을 돌보아 줄 것이다. 정부는 네 가족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픈도어에서 식량지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오픈도어

인도계 미국인 기독교단체 연합회 존 프라부후도스(John Prabhudoss) 의장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에 인도의 종교적 소수민족이 학대를 당했다는 여러 건의 보고를 받았으며 “특히 이번 위기 때 국민을 돋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 중 상당수가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 김 기자

그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서도 “심지어 당신이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라. 그들이 너와 함께 살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라”고 강조했다.

제이크스 목사는 지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꾸준히 비판해 왔다. 지난 5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그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어긴 기독교인들에 대해 비성경적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예수께서 괘야에서 받은 시험을 언급하며 “사탄은 (예수께)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산에서 뛰어내

려도 천사들이 너를 받아들여 줄 것이라 했다”며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들이 그를 불드는지 보려고 산 위에서 몸을 던지지는 않았으셨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대형교회 노스포인트 커뮤니티교회 앤디 스탠리(Andy Stanley) 목사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생존자 스튜어트 휠러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스튜어트 휠러는 보건 지침을 따르지 않는 행태에 대해 “이것은 의료계에 대한 엄청나게 무례한 행동이다. 그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유진 김 기자

이란 정부, 성공회 목사에 ‘국가적대단체’ 이유로 징역 선고

이란에서 영국 성공회 소속 목사가 ‘시온주의 복음주의 단체의 일원’이라는 혐의를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24일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영국 런던 소재 이란 인권감시단체와 기독교인 종교자유 감시 단체인 아티클18에 따르면, 이란계 기독교 개종자인 이스마일 마그레비네자드(Ismail Maghbchinejad) 목사는 영국 성공회에 소속되어 있다.

감시단체에 따르면 마그레비네자드 목사는 올해 초에 선고받은 징역 3년 중 1건인 ‘이슬람교에 대한 신성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19일 항소심에서 무혐의로 인정됐다.

그러나 이를 전인 22일 추가로 받은 ‘국가내란선동’과 ‘정권 적대 단체 소속’ 혐의에 대한 선고는 그대로 유지되어 그가 징역 2년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체는 언급했다.

아티클18 변호사 만수르 불지(Mansour Borji)는 지난주 성명에서 이란 정부가 영국 성공회 목사를 국가에 적대적인 단체 소속으로 고발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불지는 “이란 혁명 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 활동으로 체포된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전반적인 짐리포(blanket labeling)를 부정확하게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티클18이 밝힌 법원 문서에는 ‘복음주의적 시온주의’라는 기독교적 견해를 가진 집단을 적대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비영리 단체에 따르면, 이란 법원이 항소 전보다 가혹한 형을 선고한 이유로 단지 그가 필리핀 사람들의 책

에 나온 성경 구절이 위성TV 채널을 통해 자신의 휴대폰에 전송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마그레비네자드 목사의 딸 마하사는 앞서 아티클18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은 아버지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아버지가 건강이 나쁜 동생의 유일한 간병인이기에 그의 수감 생활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마하사는 “아버지가 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도대체 어떤 정책이나 법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이란 당국은 이달 초에만 3개 도시에서 최소 12명의 이란계 기독교인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이슬람교도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특히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가정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란은 오픈도어 USA가 꼽은 기독교 박해국 9위에 해당되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유진 김 기자

“산소 호흡기 대신 마스크 착용을”

텍사스 메가처치 목회자,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텍사스주 댈러스에 위치한 메가처치 ‘포터스하우스(The Potter's House)’의 설립자인 TD. 제이크스(TD. Jakes) 목사(사진)가 지난주 금요일 소셜미디어에 마스크 착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하비트 헨더슨 소수민족 사무소가 페



이스북에 올린 그의 비디오 메시지에는 웨스터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제이크스 목사는 지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꾸준히 비판해 왔다. 지난 5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그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어긴 기독교인들에 대해 비성경적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예수께서 괘야에서 받은 시험을 언급하며 “사탄은 (예수께)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산에서 뛰어내

려도 천사들이 너를 받아들여 줄 것이라 했다”며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들이 그를 불드는지 보려고 산 위에서 몸을 던지지는 않았으셨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대형교회 노스포인트 커뮤니티교회 앤디 스탠리(Andy Stanley) 목사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생존자 스튜어트 휠러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스튜어트 휠러는 보건 지침을 따르지 않는 행태에 대해 “이것은 의료계에 대한 엄청나게 무례한 행동이다. 그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유진 김 기자

광동초미스 CHOIS PREMIUM

침향도 광동이 만들면 다릅니다
광동 침향환으로 깨어나십시오!

광동제약이 깨끗한 침향에 건강명품 녹용,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국산 원료 13종까지!

광동 침향환, 이 한 알에 다 들어있습니다!

특별이벤트
2+1



沈香
반세기 최씨 고집,
광동의 기술과 침향이 만나다

- 녹용과 침향을 최대로 넣은 침향 대표 제품입니다.
(자사 제품 기준)
- 57년 역사의 광동제약은 신뢰와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국내산 원료(침향/녹용 제외)
하나하나 간간하게 정성껏 관리합니다.
- 전통 소재 개발에 힘써
광동제약의 노하우로 원료 하나하나
직접 선택, 개발하였습니다.
- 영양공급, 건강증진, 체질개선,
활력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리미엄 건강활입니다.

| 무료상담 |
1899-1260

Kwangdong



광동제약 전속모델
배우 김영철

마·중 갈등 격화에 韓 외교 중대 기로… “전략적 모호성 한계”

전문가들 “현안별 공론화 통해 조속히 원칙 확립을”

마·중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한국 정부의 줄타기 외교도 중대 기로에 놓였다. 최근 미국이 한국 기업을 죽 짊어 중국 통신장비기업인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요구한 것은 물론 경제반영네트워크(EPN), G7 확대 정상회의 참여, 홍콩 국가 보안법 시행 문제 등을 놓고 한국을 향한 적극적인 선택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마·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적 모호성’ 외교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하면서 공론화를 통해 현안별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외교부는 오는 28일 3차 외교전략조정회를 열고, 마·중 갈등 현안과 과장을 점검한 후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에 이어 홍콩 국가보안법,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을 놓고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이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요구하자 중국이 쓰촨(四川) 성 청두(成都)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로 반격하면서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던 모습. 더 격해지고 있는 미중갈등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이들 사이에서 추구해 왔던 ‘전략적 모호성’이 시효를 다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문제는 미중간 대립이 심화되는 국면에 서 미국이 동맹국에 반중(反中) 전선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탈(脫) 중국 경제 동맹인 경제반영네트워크(EPN) 참여를 요구한 데 이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비롯한 호주,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안했다.

특히 미국은 LG유플러스에 화웨이 퇴출을 요구하며 공개 압박에 나섰다.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사이버·국제 통신정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21일 미 포린프레스클럽(FPC)이 주최한 화상 브리핑에서 “LG유플러스 등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회사들은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 옮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화웨이 장비가 정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 기업과 화웨이, ZTE와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자국 내 화웨이 장비 사용을 통제하고 있으며, 주요 동맹국들에도 보이콧 동참을 요구한 데 이어 한국 기업까지 공개적으로 걸고 넘어지면서 반중 전선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 역시 반중 전선에 동참한 국가를 향한 보복 조치를 취하며 강력한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코로나19 책임론을 제기해온 호주에

육류 수입 일부를 중단한 데 이어 호주산 (産) 보리에 대해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화웨이는 버라이즌과 시스코, HP 등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5G 특허로 반격에 나섰다.

특히 중국 정부는 양자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에 미국의 공세적인 조치에 반대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 가속을 위한 행보에 동참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에 중국 인권 문제에 관한 각종 낭설과 사설 진상’이라는 입장문을 올리며 적극적으로 미국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과 중국의 줄세우기 압박이 고조되면서 한국 외교도 시기에 놓였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교부는 오는 28일 강 장관 주재로 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학제연계와 함께 미중 갈등 상황에서 종합적 대응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내신기자 브리핑에서 “기본 외교 정책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미중

전략 경쟁을 포함해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원칙과 국익을 분명히 지키면서 전략적인 경제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중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1년 한시로 운영했던 전략조정지원반을 상설화하며 장기전을 대비하고 나섰다. 외교전략기획관 산하 정세분석담당관을 전략조정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신설된 전략조정담당관실은 정세 분석은 물론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의 조정, 주요국 관련 긴급 외교현안 대응 및 동향·정보 분석 등을 주기로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추구해 왔던 ‘전략적 모호성’이 시효를 다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중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급히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현안별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존 경제와 군사·안보적인 영역 뿐만 아니라 인권·민주주의라는 가치, 체제 우위론까지 확대됐다”며 “지난 5월 베이징에서 대중국 접근 전략보고서가 발표된 후로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을 구분해 호칭하는 등 본격적인 이념 경쟁

까지 격화됐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기존 전략적 모호성에서 미중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제는 선택을 해야하는 현안이 마련 조속히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들과의 합의를 거친 원칙을 확립하고 대마다 중 외교, 미중의 전략적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원근 한동대 교수 역시 “그 동안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제사회 규범, 세계화,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다자주의, 자유무역 등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손해를 각오해야 한다”며 “다자가 움직일 때 빨리 목소리를 내야 한국에만 보복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홍콩 국가보안법과 경제번영네트워크, 화웨이 사용 문제, 인도태평양전략 참여 등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시작하고 공론화를 거쳐 한국 정부의 입장을 마련해야 미중이 쉽게 압박을 가할 수 없다”며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팀(TF)를 만들고, 분야별로 여론을 모아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현 기자

“한동훈 수사하지 말라”… 검·언유착 수사팀 어쩌나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불기소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심의한 외부 위원들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향후 수사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결론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 공모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모양새라, 강요미수 혐의를 수사하는 수사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에 대해 현안위원 10명이 수사 중단,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 전 기자와 관련해서는 현안위원 12명이 수사 계속, 9명이 공소제기에 투표했다.

이번 결론에 비춰보면 수사팀은 그간 공개한 부산 대화 녹취록과,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벤루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 외에 한 검사장이 이 사건에 공모했다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은 그동안 자신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전날 수사심의위에서 이같은 항변으로 설득했고 결국 현안위원들이 한 검사장의 항변을 받아들인 셈이 됐다.

수사심의위 이번 결론에 따라 이 전 기자 구속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 개입 여부를 따져보려던 수사팀의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사실상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의 공모라는 연결 고리를 끊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릴 만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었다.

법원도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수사팀이 주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속에서 독립적인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결국 수사 전권을 부여받은 것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팀이 강제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의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만큼 수사팀이 한 검사장 수사를 계속할 경우 비판 여론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옥성구 기자

NCCK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민(民)의 평화협정’ 선언문 발표

NCCK(한국기독교교협의회, 총무 이홍정)가 24일 ‘민의 한반도 평화협정’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 취지에 대해 “한국전쟁이 밟밟한지 70년이 되었다. 그동안 정전체제, 분단체제가 한반도를 지배하며 한반도 주민들은 불신과 증오,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왔다”며 “해소되지 않은 냉전체제 아래 전쟁의 위협과 폭력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의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동북아시아는 무기경쟁의 각축장이 되었고, 이는 북의 해무기 개발로까지 이어졌다. 한반도의 불안이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것이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적대정책이 불러온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은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제2조 13항)을 언급하며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관련 당사국들은 정전 70주년이 지난 이 시기까지 평화협정 체결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NCCK는 “인전한 삶의 보장과 평화를 염원하는 한반도 주민과 세계시민의 의지를 모아 ‘민(民)의 평화협정’을 선언하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며 “이 민의 한반도 평화협정을 토대로 향후 국내외 종교시민사회는 2023년 정전 70주년을 맞기 전 온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령구 기자

Sulwhasoo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CCM 인터뷰] ‘주의 은혜가 족하다’ 발매한 오세광 목사

주의 말씀 불들게 하소서
주 은혜로 불들린 한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가겠으니
주여 나를 불드소서
주의 말씀 불들게 하소서
주 은혜로 불들린 한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가겠으니
주여 나를 불드소서
주의 은혜가 족하다
- 가사 중 -

‘말씀대로 찬양’이라는 타이틀로 매달 하나님의 찬양을 발표하고 있는 오세광 목사가 말씀대로 찬양 5 ‘주의 은혜가 족하다’를 최근 발매했다. 목상할 수록 깊은 은혜를 주는 찬양의 가사가 무엇보다 인상적이다. 어려움이 점점 커져만 가는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담담하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찬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광 목사와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 안녕하세요. 잘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잘지내고 있습니다. 모임이나 예배 등 함께 모이는 상황이 어려워 지다보니 혼자 보내야 하거나 혹은 가족들하고만 보내야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때가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보내야 하는 시간들 속에서 난 잘 보내고 있는가?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이번 싱글 앨범 소개 부탁드려요.

“이번 싱글의 노래의 제목이 ‘주의 은혜가 족하다’인데요. 사실 족한 줄 아는 것이 너무 어렵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시를 해결받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약함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를 깨달아 이런 저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기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믿어집니다.

이런 삶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찬양의 가사와 말씀이 각자의 삶에 분명 달라 있을 것이고, 달라 있을 것 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듣는 이들도 많이 울었구요. 하나님 앞에서 흘린 이 눈물은 양육함의 울음이 아니라, 나처럼 약한 자에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울게 되는 것이지요.”

- 벨트워십 사역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요즘은 모든 분들이 어려운 때를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늘 상황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지금이 딱히 더 힘들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웃음).

어려움에도 종류가 각각 다르겠지만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힘든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광야의 때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족한 은혜다.라는 것이 말씀 안에서 믿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면 나의 약함도 받아들여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기 위해 나의 약함 가운데 거하셔야 한다는 원리에 동의가 내려지면, 오히려 나는 강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의 유명한 일화 중에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구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였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세 번이나 구했다는 것은 분명 육체의 가시는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구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고 있으니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더 멋지게 사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였다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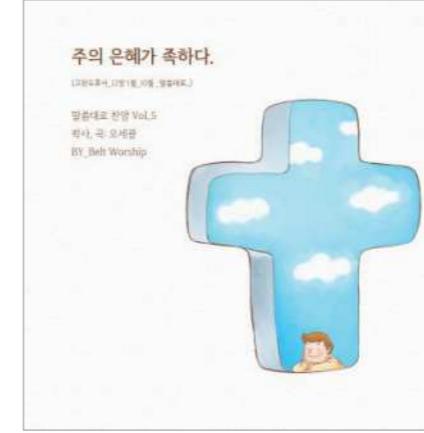
저의 삶이 이정도인 것, 제 사역이 이정도인 것, 제 능력이 이정도인 것, 내 재정 상태가 이정도인 것을 놓고, 하나님께 구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들을 좀 정리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만약 ‘내 은혜가 네게 족해’라고 하신다면 내 마음은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고민도 후서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참 많이 써를한 것 같아요.

내 상황과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가 아니라, 이렇게



오세광 목사



오세광 목사가 말씀대로 찬양 5 ‘주의 은혜가 족하다’를 지난 16일 발매했다. ©오세광 목사

한 찬양 사역자로서 성경의 각 책과 장별로 그 주제와 말씀에 맞는 찬양곡을 작곡하려고 합니다. 이미 그 일은 시작했구요. 저희 벨트워십 유튜브 채널에 매주 한곡씩 업로드를 하는 중입니다.”

- 추천하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이유와 함께 나눠주세요.

“찬양사역자 유봉기 목사의 싱글 음원 ‘고운가루’라는 찬양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고백 또한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라는 말씀의 중요한 핵심을 유 목사의 독특한 시적인 고백으로 풀어낸 서정적인 찬양이거든요. 뮤직비디오를 정식으로 제작하신 것 같아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 더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가요?

“저희 찬양 사역자들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주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 간다면 그것이 저희의 상급이 됩니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

“저는 지금 ‘말씀대로 찬양’이라는 형태의 찬양곡 즉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각 책과 장의 주제와 해석을 정확히 이해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찬양곡들을 충분히 많이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

설교하시는 목사님들께서 각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강해 설교 하시듯이 저 또

저의 곡이든 아니면 다른 찬양 사역자들의 곡이든, 설교를 찾아서 들으시는 것처럼 유튜브나 음원 사이트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회중이 좋은 설교자를 만들다는 말도 있듯이, 좋은 팔로워들이 있다면, 좋은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격려 받고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민수 기자

위기 목회자가정 장애자녀 긴급지원 캠페인

밀알복지재단, 코로나19로
이중고 겪는 목회자 돕고자



밀알복지재단 목회자 장애자녀 긴급지원 캠페인으로 도움받은 A선교사 가정. ©밀알복지재단

시작하게 됐다”며 “주은이를 한국에 두고 떠나며 무거운 마음이 아닌, 기쁨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밀알복지재단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미자립교회는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특히 자녀의 장애로 기준에도 의료비 등 돌봄 부담을 겪었던 목회자 가정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코로나19 종식이 불투명 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 가정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이에 밀알복지재단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에 이를 때까지 캠페인을 이어가며 목회자 가정의 장애 자녀들을 도울 예정이다. 재단은 캠페인에 동참한 교회를 모집하는 한편, 의료비나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목회자 가정의 장애자녀도 찾고 있다.

관련 문의는 밀알복지재단 미션사업부(070-7462-9087)를 통해 가능하다. 캠페인에는 현재까지 높은 옛광성교회, 분당중앙교회, 산이교회, 새영교회, 세대로교회, 서울반석교회, 성문교회, 신도봉교회, 신태인교회, 수령로교회, 우리는 교회, 의왕우리교회, 오케이교회, 오륜교회, 주안장로교회, 죽전우리교회, 한우리 교회, 혜성교회가 참여했으며, 밀알복지재단은 모아진 후원금으로 개혁교회 목회자 가정 7곳, 선교사 가정 2곳, 부교역자 가정 11곳에 의료비와 생계비를 전달

한 상황이다.

밀알복지재단 유권신 미션사업부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더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장애자녀를 둔 가정이 아닐까 싶다. 어려운 중에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관심과 사랑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작은 나눔이 모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다.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해당 캠페인에 동참한 주승중 주안장로교회 담임목사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고통과 두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힘든 이웃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온기를 전하는 것”이라며 더 많은 교회가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목회자 가정 장애자녀 긴급지원’ 캠페인을 실시한 밀알복지재단은 1993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설립된 장애인 복지 전문기관으로, 장애아동 의료비지원사업을 비롯해 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등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49개 운

영시설을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과 아동,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 14개국에서도 아동보육, 보건의료, 긴급구호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A선교사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하락하시어 건강한 기독교사회 복지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주은이가 지역사회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을

노형구 기자

**하늘은 막고
혜택은 많다**

종이 통장 만들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작은 실천이
최고 연 2.35%의 금리와 다양한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KB스타뱅킹에서 가입하세요
KB맑은하늘적금

최고 연 2.35%
2020.05.12 기준, 세금, 보험, 우대금리 연 1.0% 포함

**환경 미션 달성 시
최고 연 1.0%
우대금리 제공**

종이 통장 만들지 않기 [연 0.1%p]
종이 서식 사용하지 않기 [연 0.2%p]

대중교통 이용하기 [최고 연 0.6%p]
환경상식 퀴즈풀기 [연 0.1%p]

▶ 대중교통 / 자전거
상해관련 무료보험 제공
[최대 2억원 보장]

KB국민은행

이상원 교수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환영하며



이명진 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여호와께서 돌아가자,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실 것이다

2019년 10월 4일 인간학 강의 시간에
동성애의 위험성을 강의한 이상원 교수
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3가지 징
계 사유를 들어 2020년 5월 18일 교수 해

임을 통보하였다. 개혁주의 대표적인 신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동안 합동교단 노회장들과 많은 동역자
들은 총신대가 바른 결정을 하도록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총신대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자신들의 정
당성을 주장했다. 급기야 해임을 당한 이
상원 교수는 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을 냈다. 2020년 7월 24일 가처분 인용 결
정을 받아 해임조치가 일시 정지되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복직절차
를 따라 다시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하며 총신대
당국자와 이상원 교수의 징계를 향의하

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먼저, 추운 겨울 영하의 날씨와 맹렬의
여름까지 총신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고, 각 처소에서 총신대를 위해 드
린 기도를 주께서 받아 주십에 감사를 드
린다. 총신대에 바라기는 이번 가처분 인
용 결정을 종신대 당국자들이 조건 없이
수용하고 화합과 학교가 재도약하는 발
전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주
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다. 주님
의 눈과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랑으로 회
복되기를 기도한다. 우리 모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이기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호세아 선지자가 부
르짖은 기도를 드리길 원한다.

이상원 교수 징계에 항의하는 모든 동
역자들도 이번 결정을 통해 총신대를 위
해 더욱 기도하고 후원하는 원원자가 되
길 기도한다. 총신대는 지난 수 년 간 많
은 환란과 시련을 겪어 왔다. 개혁주의 신
학교인 총신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음과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 주
님이 싸매어주시고 낫게 하시길 함께 기
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상한 감정이 말
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녹아지고 용
서와 화합의 계기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
한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
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
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
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
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아침
없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
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호
6:1~3)

총신대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
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번 기회로 총신대가 개혁주의 신앙과
다. 아멘

신학 위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
니다. 먼저 이번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이들
의 상한 감정을 위로해 주시고 깊은 상처
들을 먼저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하옵소서. 소금의 맛을 잊지 않고 화목
하는 신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
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신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헌생해서라도 말씀과 진리를 지키
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내어 놓는 신양인
들이 배출되는 신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
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는가?



◆거짓을 통해 인정받은 동성애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9년 알프
레드 킨제이는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
아 “남성의 성적행동”을, 곧 이어서 1953
년 “여성의 성적행동”을 출판하였다. 이
책에서 킨제이는 남성의 13%, 여성의 7%
가 동성애자라고 주장하였다. 1990년 주디스 라이스만이 “킨제이의 성과 사가:
사람들을 세뇌시키다”라는 책으로 킨제
이의 의도적 조작을 알릴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킨제이의 주장은 잘못된 성
지식의 근거가 되었다.

라이스만의 저서를 통해 킨제이 자신
이 다양한 도착적 성행위를 하는 사람
으로 성에 대한 모든 사회제약을 깨뜨리
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밝혀졌다.
그는 자기가 조사한 표본에 남성매춘부,
소아애호자,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교
도소 수감자 등 성도착자의 비율이 높
은 집단을 전체의 4분의 1이나 차지하도
록 의도적으로 많이 포함시켰다. 이를 통
해 미국인의 10%가 동성애자라는 통계
수치를 만들어내었다. 이 수치를 근거로
동성애 운동가들은 1970~80년대 미국
의 정책을 친 동성애적으로 전환하고 유
지하는 계기를 만든다.

이에 킨제이의 자료에 의심을 가지게
된 여러 국가들이 1990년대 중후반에 이
지어 부모들까지도 배제된 오직 두 사람

로서야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리고 동성애자의 비율은 유럽과 미주에
서 0.8%~1.4%로 양성애자를 포함시켜
도 2.4% 이하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경험자까지 모두 포함한다 해
도 2% 이하로 추정된다. 물론 숫자가 적
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를 허용하는 입장이나 정
책수립의 배경에 거짓된 통계수치와 동
성애가 유전된다는 거짓된 논문이 있었
다는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는
어떻어야 하는가?

성경에서 동성애는 가증한 죄라 규정
하고 둘로 치라고 명한 명백한 죄이다. 그
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실
정법상 죄가 아니다. 또 자기 소견에 옳
은 대로 살아가는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그들을 배난할 합의된 윤리적 기준도 없
다. 우리 역시 죄인이기에 그들을 배난할
자격이 없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
스도께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의 해
결방법은 무엇일까? 그들과 싸워 이겨서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둘로 치는 것이 아
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성경이
가르치는 성에 대해서, 그리고 동성애의
현실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구성과 역할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
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
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고 기
록한다. 부부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 심

지 않으면 육체적 성장을 유지할 수 없
지 않으면 육체적 성장을 유지할 수 없

다. 성호르몬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당
뇨, 고혈압, 비만 등 만성대사질환이 발
생한다. 결국 대부분이 450대에 이르면
병들고, 성 정체성을 잃어버린 몸과 마음
이 남을 뿐이다.

◆동성애는 치료될 수 있는가?

동성애는 성 종족의 일종이다. 모든
종족에 여러 등급이 있는 것과 같이 이
종족에도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빠져
나오기 힘들다. 유전이 아니므로 치료가
가능하다. 정신과 치료를 통해 30~80%
정도가 치유된다. 미국에서는 1973년 이
전까지 치료를 했고 우리나라도 최근까
지 치료를 하였다. 미국의 NARTH(동성
애를 치료해야 한다고 믿는 정신과 의사
들의 연합) 회원들은 치료를 원하는 동
성애자들을 꾸준히 치료하고 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의 문제점

동성애는 다른 종족과 미친기자로 순
간의 짙고 강렬한 쾌락과 점점 더 강한
것을 반복적으로 찾는 중독 뒤에는 평생
에 걸친 길고 긴 고통이 따른다. 차별금
지법이 되고 과도한 성행위를 물두하
다 보면 1~3년 내에 대부분의 관계가 파
탄난다. 때문에 동성애자는 나이가 들면
가족도 없고 성적인 매력도 없어져서 어
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그 결과 남
성 이성애자에 비해 게이는 알코올 중독
이 2배 이상, 자살시도는 3배 이상 많다.
AIDS를 비롯한 여러 성병과 암으로 인
해 수명이 25~30년 짧다.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는
성 전환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반
대 성의 성호르몬을 지속적으로 투여하
면 성장을 유지할 수 없

‘차별금지법’ 공동발의 추진은 성죄 의식 없애는 행위



이성심 집사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부산지회 전 사무국장

반대한다.

인간이 성에 집착하고 성의 노예가 된
다면 개인도 나라도 결국 폐망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악한 범죄가 동성애인데 이
를 법으로 허용하는 일을 즉각 멈추길
촉구한다. 이 시간에장애인활동보조제
도 개선과 같은 일을 하길 요청한다. 현
장애인활동보조제도는 만 65세가 되면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넘어간다. 월 120시
간을 한 달간 나눠 사용하면 하루 3~4
시간밖에 케이블을 받지 못하므로, 그 이외
의 생활을 올 스트ップ되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중증뇌성마
비 장애인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이상민
의원께서 장애인 등급을 받으셨는지 정
확히는 모르지만, TV로 볼 때 훨씬 타
시는 것을 보았다. 장애인들을 위해 더욱
유익한 법의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법을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대
면할 수 있으면 이상민 의원에게 묻고 싶
다. 이상민 의원 자녀들이 동성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선뜻 그렇게
하고 하락해줄 자신이 있느냐고 묻고 싶다.

우리 믿는 1,200만 성도가 이 법만큼
은 목숨을 내걸고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
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것처럼 기도해
야 한다. 우리 기독교가 진정으로 나리의
앞날을 위한다면 후세를 위해 이 법만큼
은 통과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저지
해야 한다.

기 도 만 할 것 입 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2,500만 형제가 사는 복음의 불모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왼 손이 모르게 ~~

전 도 자 를 준비합니다.

오른 손이 ~~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12:1)

민족복음 사관학교

[설립이념]

1. 탈북민과 북한주민에게 복음을 전할 북한선교전문 지도자 양성
2. 남북통일 이후 북한선교의 중추적 인재 양성

[교육]

1. 사도적 사명감과 자질
2. 교회 실무교육
3. 리더십 훈련

[피교육자]

1. 전 교육과정 장학금
2. 생활비 지급

NORTH
KOREA
MISSION

사회

경제

문화

통일

북한전문

개인

사업

주민

의식

돈주

SNS

탈북자

*개인사업
:운송·무역·건설회사

우리가 지켜내야 할 대한민국의 가치

이효상 목사
근대문화진흥원
한국교회건강연구원장



정치권은 뭘 하는지,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싸우느라 국민은 무얼 먹고,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다. 그렇게 허송세월만 간다. 구태를 털어내고 정권을 맡겨도 될 만한 든든한 대안정당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 보수는, 진보가 무능한 아파추 아들이라서 언젠가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 일 말의 희망을 걸고 있다. 반면, 진보는 보수를 친일과 반공의 유산에 물든 구시대의 잔재로 보고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으로 치부한다.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민심은 마구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다. 민심은 무능도 싫어하지만 독선과 오만은 더욱 싫어한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니' 취급하기에 사람들은 분노한다. 빛은 공짜가 아니다. 정치권은 가게 빛은 적신 호인데도 3차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며 빛내서라도 일단 돈 쓰고 보자는데 있다. 하지만 국민의 관심은 단 한 가지 민생해결이다. 누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느냐, 누가 더 좋은 정책을 제시하느냐에 있다.

얼마 전 어느 정치인이 쓴 책에서 "국민 모두가 한국정치의 '창조적 파괴', '파괴적 혁신'을 결심해야 한다. 정치의 근본을 바꿔야 국민이 산다. 상생과 타협의 정치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는 글을 읽었다. 정치 변혁에 대한 글에 공감하면서도 서로 대화와 가교도 없이 비판과 공격만 일삼는 양 진영논리에 현실정치의 문제가 '사립'의 문제인가, '책임'의 문제인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가를 심각히 고민하게 됐다.

우리는 흔히 '사립'만의 문제라고 보고 사람을 미워하거나 '극혐'으로 비판하고 한다. 가령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 급발진의 경우처럼, 미끄럼전복·화재가 생겼다면 분명 '차량결함'이다. 심각한 결함이다. 사람의 운전 문제를 넘어 시스템의 오작동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리석은 지도자는 "내가 하면 날보다 잘 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린다. 또는 "나까지는 해먹어야 한다"라는 뱃포, "이건 내꺼다"라며 사유화하려는 이런 고집과 사욕이 조직이나 기관을 망친다. 꼭 조직이나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다. 사유화를 막고 함께하는 공적영역의 가치와 공적 시스템의 구축은 요원한 것인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지켜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진정한 가치는 어떤 것인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이다.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1인 1표이지만 '다수결'이라는 함정이 있다. 선거에서 '좋아하고 지지하는

후보'보다는 '이길 후보'를 찍는다. 내 표가 사표(死票)가 되길 원치 않기 때문이다. 무조건 단 1표만 많아도 다수면 된다는 '단순 다수제' 방식의 오류다. 51대 49라면 당연히 51이 승자이겠지만 상대방인 49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수가 됨으로 소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수의 오만한 횡포에는 답이 없다. 이런 다수가 권력이 되면 사생활에까지 간섭이 심해진다.

'자유로울 줄 알았던 민주사회는 공권력이 전횡되는 모순을 얻게 된다.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포괄적'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이 그렇다. 이렇게 독소조항이 있는 법안에 대해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기보다는 '그들만의 성역'을 만들어 그 결정을 따르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성과 다양성이 기반한 '자유'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전제주의적 사회화가 춤을 준다. 취조리만한 권력이나 자리도 권력이라고 사람들은 그 편에 줄을 서게 된다. 그래서 정치는 그저 과정에 만들어 놓은 그 틀을 밀천삼아 적당히 관리하며 소비하다 문 닫으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겉으로 '혁신', '미래'를 말하지만 그런

갈등과 분쟁의 시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가치혼돈 시대를 살아가며
준비할 것이 있다면,
성경적 가치·지혜가 아닐까

변화와 시도조차 보이지 않는다. 아니 꿈도 꾸지 않는다. 요지부동이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는 많이 가진 '갑(甲)'들의 세상이다. 실직자·무주택자·신용불량자·고령자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들을 무시한 채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을 더 키우고, 사회적 불공정을 대놓고 자행하는 데도 가진 자들의 갑질에는 해답이 없다. 이것이 '천민자본주의'의 실체이자 폐�이다. 정부는 땀흘려 일하는 자들이 보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공정의 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장의 왜곡과 독점폐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지만 현실은 수요공급의 법칙을 뒤로하고, 저녁 값부터 아파트값까지 정부가 정하고, 일자리도 국가가 만들고, 친시장 정책을 외면하다보니 정상적인 시장의 작동이 붕괴되거나 교란현상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자율성을 통제하고 역동성을 상실케 하며, 개인의 다양성이나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갈 순 없지 않는가. 이렇듯 불안전하고 모순을 안고 있는 구조가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러기에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최대 다수라는 지분을 가졌

다가 돈 많이 낸 사람이 갑(甲)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싶은대로 한다면, 딱히 할 말은 없다. 남용되는 권한을 탐하고 누리려는 어찌면 언제 타죽을지도 모르는 불빛에 달려드는 불나방들이다. 그런 순간적 달콤함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이들이 낡은 시스템을 지켜려 한다. 이들이 진정 미래를 위해, 국민을 위해 낡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시도할 용기나 기회가 있을까. 침몰하는 배와 같은 대한민국호(號)를 누가 구할 것인가. 국회를 바꾸고, 정치구조를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킬 그런 거룩한 능력이 있는 한 것인가.

그렇다면 건강한 사회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며,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돈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돈을 추구하는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념 약극화와 정치 불신을 넘어서 방법은 없는 것일까. 어떤 정치가, 어떤 권력이 어떤 가치가 이 사회를 융합시키고 통합시킬 수 있는가. 이런 시스템의 변화를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브레이크 없이 오만하거나 탐욕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꿈꾸는 것은 나만의 환상일까. 이런 세상을 지향하는데 기독교 가치가 전제되거나 전환되지 아니하는 건강한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켜 낼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다. 기독교 가치가 사회 전반에 깔리므로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시스템이다.

이 시대 지도자의 자질은 무엇일까. 의무·책임·열정·안목·균형감각 등이다. 다들 자리에 대한 열정은 뜨겁다. 지도자는 집을 지는 자다. 하지만 의무에는 무관심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도 적다. 또한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 안목을 가진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균형감각까지 두루 갖추면 최고의 경지다. 오늘 우리 지도자에게 그런 다섯 가지 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건강한 지도자라면 자존심과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는 가치와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헌신해야 한다. 오늘이 있기까지 당당한 성취를 펼쳐하거나, 과거사만을 드러내 국민을 자조적자학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열정과 책임, 그리고 안목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 임자들이 결국 자살하거나 권력을 놓음과 동시에 감옥에 들어가야만 하는 현실은 문제이다. 우수한 경쟁자를 죽이는 소비정치는 어떤 말로 설명해도 불행이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다. 광장을 촛불로 물들여도, 정권을 교체해도 우리의 현실이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무엇인가. 자꾸 되풀이 되는 사고의 후진성에 과연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이제는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의 노력을 고민해야 한다. 어차피 정권은 돌고 도는 것. 대통령제와 양당정치, 수도권 중앙집중부터 바꿔야 한다. 자치

능력이 사라지고 중앙으로 권력집중이 계속되는 한 지금과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없다. 기존 가치에 대한 '각성의 대전환'이 필수조건이다. 보수가 보수로 살면 '보수꼴통'이 되고, 보수가 진보로 살면 '후안무치'가 되고, 진보가 진보로 살면 과격해지거나 '무도덕'하기 쉽다. 무너져가는 권위를 지키려 하면 '꼰대'가 되고, 기득권에 의지하면 '적폐'가 된다. 진보는 이미 기득권이 되었다.

성경에 보면 자신에게 맡겨진 권한으로 빛진 자의 과거 채무를 탕감하거나 어려운 이들의 세를 경감해 준 청지기이야기나 나온다. 개혁적으로 볼 때, 시스템 변화의 노력으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지만, 전통적 입장에서 보면, 주인의 권한을 멋대로 사용했다는 일명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은 오히려 '지혜롭다' 칭찬했다. 혹시나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갈 세상'을 꿈꾼 것 아닐까.

시대에 맞는 옷처럼 시스템의 변화와 새로운 가

치가 필요한 것 아닐까. '우리끼리'의 권력에 취하면 안팎의 쓴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민심을 읽지 못하는 권력은 위험하다. 그렇게 공동체를 분열시켜 패거리끼리 이익을 취하려는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탕감'과 '등용', '대 탕평책'으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공감하는 '건강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사회적 틀을 만들기 위해 '통합과 융합'의 가치를 높이 들여야 한다.

갈등과 분쟁의 시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가치흔둔의 시대를 살아가며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적 가치와 그 지혜가 아닐까 싶다. 그기에 세상의 지혜보다 더 현명한 신앙의 지혜가 언젠가는 세상가치를 바꾸는 날이 오리라 믿으며 빼아픈 역사의 기회비용을 이제 그만 치르고 변혁의 그날이 빨리 도래하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

평화에 평화를 더하여



연요한 목사의
아침을 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익숙한 것, 편리한 것, 편안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약속을 따라 진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영광에 이르는 것들을 진리로 풀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나를 던질 때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제게 소망과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몸을 멀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사 38:17) 큰 고통을 겪는 중에 하나님께서 평안 주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모두를 가르치시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신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들을 다 벗어야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시 29:11)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임하시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평화의 복음이 기쁨을 줍니다. 저의 평

생에 평탄하여 잔잔한 강물같이 늘 평안을 주옵소서.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여 평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믿음은 불멸의 방배입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하게 하옵소서. 불신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믿음이 없이 비뚤어진 세대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평화에 평화를 더하여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실하십니다. 저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바탕을 두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힙입니다. 분노로 감정을 흔들어 지성을 마비시키고, 원망과 오해, 불평의 낙서를 써놓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내 삶의 방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며 매우 큰 상을 너에게 내리리라. 이제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불리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여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자들의 굳센 신성이 되옵소서. 아멘.

연요한 목사는 송설대, 송의여대 교목실장과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장을 역임하였다. 최근 저서로『사순절의 영성』『부활 성령강림』 등이 있다.

근육생성 필수 아미노산
함량 높은 하루콩력

살찌우는 데 영양 흡수 드는 효소력

건강체중 프로그램은 단백질 및 영양분 흡수가 잘되는 체질 개선을 위해 6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른 사람들은 대개 근육이 부족합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빠져나가죠. 근육을 보호하지 못해 몸이 앙상해집니다. 이렇게 마른 사람들은 속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더부룩한 증상을 겪기 쉽죠. 얼마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섭취한 단백질이 체내에 얼마나 잘 흡수되어 근육으로 바뀌느냐가 살을 찌우는 관건입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식물성 단백질, 마른 사람의 장 속에서도 잘 흡수되는 단백질! 그 주인공이 발효콩 단백질입니다.

발효콩 단백질은 말라서 힘없는 분들을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발효콩 단백질은 주로

식물성 단백질 중 필수 아미노산을 가장 이상적으로 함유한 대두와 생리활성물질이 풍부한 검은콩을 발효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발효공학자 계명대학교 정용진 교수가 개발한 '저분자 펩타이드 공법'은 콩에 든 단백질을 '흡수력 짱'으로 만드는 발효공법으로 특허까지 받은 기술입니다. 이 공법으로 발효된 콩은 발효 전 콩보다 8종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10.5배 더 높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류신은 32.5배까지 높아집니다. 근육을 생성하고 살찌우는 데 좋은 자격을 갖춘 셈이죠. 살이 잘 붙을 수 있도록 발효콩 단백질만 힘쓰는 게 아닙니다. 발효콩 단백질에게는 단짝이 있습 니다. 바로 영양 흡수를 돋는 효소입니다. 대한민국 '효소 선구자'로 불리는 故 이정의 선생의 사위 전진성 대표가 장인의 기술력을 이어받아 고강도 곡물 효소를 탄생시켰습니다. 2대에 걸쳐 완성된 통곡물 원전발효 기술을 통해 미생물이 곡물을 분해하여 내뿜은 효소입니다.

발효콩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필수 아미노산을 빠르게 체내로 공급하면, 효소가 아미노산의 분해·흡수를 강화시킵니다. 효소의 힘으로 발효콩 단백질을 부담 없이 받아들입니다. 삼시세끼 밥 먹은 영양분도 잘 분해해 몸에 쑥쑥 흡수시키니 '빼지지 않는 몸'을 만듭니다.

건강체중 프로그램

몸에 쑥쑥 흡수되는
발효콩 단백질



영양흡수 잘 하게
만드는 효소



들이 함께 출동하면
건강체중 완성!

건강체중 프로그램 문의
www.ilove62.com

080-745-9230

고봉(高峯) 김치선의 개혁신학 사상의 특징 III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실록나비 상임대표

5. 정통 개혁신학적 성경관

고봉은 모세오경의 모세저작설을 주장하면서 고평비평을 비판했던 구(舊) 프린스턴학파의 헨리 그린(Henry Green) 교수와 그의 제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오스월드 앤리스(Oswald Allis) 박사의 논거에 근거하여 모세오경에 대한 자유주의의 문서를 비판하면서 모세 저작권 논제를 구성하고 있다.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주장을 성경의 내적 증거와 비평학자들의 주장들의 문제점들을 통하여 해명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 신화와 비교한 창세기 내용들의 독특성, 그리고 당시 진행되고 있던 고고학적 발굴의 객관적인 자료들을 활용하여 구 프린스턴 학파의 성경 영감설을 설득력있게 설명하고 있다(김치선 저, 최선 역, 『김치선 박사의 모세와 오경』, 선교횃불, 2015)。

고봉은 신학박사 학위논문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일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사회복음”(Social Gospel) 선포하고 “보혈 속죄”(Blood Atonement)를 거부하고 있다. “비평가들이 오경의 모세 저작설과 이론 시기의 저작이라는 면에서 성경을 비평하고 공격하므로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해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를 통해 비평가들의 잘못을 증명하려는 목적으로 논문이 쓰여졌다.” 그는 문서 비평의 역사와 체계적으로 다루고 고대 근동의 창조론과 신화론의 서사시를 심도 있게 연구했다. 언어학적으로 길가메시 서사시(the epic of Gilgamesh)를 직접 읽고 분석하고 있다. 고봉은 역사비평학의 모세5경의 영감성 및 모세 저작설 부인에 대하여 다음 4가지 점에서 반박하고 있다.

1장, 성경 자체가 모세가 오경의 저자라는 것을 입증한다.

2장, 파괴적인 비평가들의 주장은 설명한 후에 핵심적 내용: 모세 오경의 시대착오, 불일치, 비일관성 비판을 반박하고 모세가 오경의 저작임을 입증한다. 이 장에서 저자는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 쿠에넨(A. Kuenen), 그리고 드라이버(S. R Driver), 스미드(R. W. Smith)를 비롯한 문서설을 주장한 성서학자들의 주장을 성경과 당시까지의 고고학적 발굴 자료들을 이용하여 비판하며 오경의 모세 저작설을 입증하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독일의 보수주의 구약학자 카일(Carl. F. Keil, 1807-1888)과 델리치(Franz Delitsch, 1813-1890)의 『모세 오경 주석』(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66), 구프린스턴의 그린(Henry Green)의 『오경에 대한 고등비평』, 그리고 화이트로(Thomas Whitelaw)의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강단주석』(The Pulpit Commentary of Genesis, 1890)를 인용되었다.

Exodus, Numbers), 알리스(Oswald Allis)의 주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저자는 모세 시기에 쉽게 명의 입법 가능성을 주장한 로버슨(Robertson, Early Religion of Israel)과 오르(James Orr, The Problem of the Old Testament)의 견해를 인용하여 자신의 입장장을 뒷받침한다.

3장, 바벨론 신화와 비교하면서 오경의 모세 저작 사실을 입증한다.

4장, 모세와 아브라함의 실존 가능성은 고고학적 증거를 통하여 설명하면서 모세의 오경 저작임을 입증한다.

결론에서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고봉은 그의 논문에서 19세기 후반 프린스턴신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로서 성경의 영감설을 주장하면서 문서설을 강력하게 비판한 그린(William Henry Green, 1825-1900)의 저작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다. 그린은 구약신학을 가르치면서 당시 성경에 대한 문서설의 고등비평이 물결이 강력하게 밀려오던 시대에 필생의 저작으로 오경의 모세저작설을 입증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였고 그의 글들은 그의 사후에 모세오경에 대한 고등비평이라는 저서로 출판되었다.

고봉은 19세기 독일 루터교 전통의 정통구약학자들의 견해도 많아 참고했는데 카일은 헨스턴베르그의 신학을 이어받으면서 독일 자유주의신학의 문서설을 무시하고 구약을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의 책으로 본 정통보수적인 구약주석학자였고, 텔리치도 엘랑엔 교수로서 구약의 영감설에 근거한 견해를 피력한 보수적인 학자들이었다. 두 학자는 공동으로 구약의 주석을 펴냈고 이 주석은 오늘날까지 보수신학의 목회자들에게 애용되고 있다.

알리스(Oswald T. Allis, 1880-1973)은 독일 베를린대에서 1913년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프린스턴신대에서 1910-1929년 전임강사와 조교수로 가르치다가 좌경화에 반대하여 메이천을 따라서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설립하고 교수(1929-1936)로 봉직한 복음주의 학자이다. 그는 모세가 모세오경을 저술했다는 『모세오경』을 출판하였다. 그의 저서가 많이 인용되었다. 스코트랜드 출신의 제임스 오르(James Orr)의 1906년 문서설 비판 저서 Problems of the Odd Testament Considered with reference to Recent Criticism)도 인용되었다.

고봉은 그의 박사 논문에서 창세기 36장 31절에서 스코필드의 성경(p. 35)을 인용하는 것 외에는 달라스신학교 교수들의 저서를 인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근거에서 우리는 고봉의 박사 논문에 달리스의 세대주의적 영향을 나타나지 않고 그런 과 엘리스를 중심으로 한 구프린스턴학파와 웨스트민스터학파의 개혁신학적 입장이 주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루터교 전통의 카일 및 텔리치의 견해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으며 당시의 성서 및 근동 아시아 고고학자 올브라이트(W. F. Albright, 1891-1971)의 저서 『팔레스틴의 고고학과 성경』(The Archeology of the Palestine and the Bible, New York: Fleming H. Revell, 1932), 영국 복음주의적 고

고학자 마스톤(Charls Marston)의 『1925-1933년 으로부터 새 성경 증거』(New Bible Evidence from the 1925-1933 Excavations,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34), 미국 고고학자 고고학자인 올리(C. L. Wooley)의 아브라함 시대의 우르지역의 환경과 발굴 결과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논문들(Antiquaries' Journal Vol. V, No.4 와 Vol. VI, No.4에 기고) 등으로 보아 고봉의 논문은 구약신학적으로도 학문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평가된다.

6. 하나 되게하는 성령론 및 은사 지속론 입장

1)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과 관련시킴

고봉은 일본 동경에서 대형 한인교회인 동경 신주쿠중앙교회(東京新宿中央教會)를 목회하면서 문서설을 강력하게 비판한 그린(William Henry Green, 1825-1900)의 저작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다. 그린은 구약신학을 가르치면서 당시 성경에 대한 문서설의 고등비평이 물결이 강력하게 밀려오던 시대에 필생의 저작으로 오경의 모세저작설을 입증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였고 그의 글들은 그의 사후에 모세오경에 대한 고등비평이라는 저서로 출판되었다.

고봉은 19세기 독일 루터교 전통의 정통구약학자들의 견해도 많아 참고했는데 카일은 헨스턴베르그의 신학을 이어받으면서 독일 자유주의신학의 문서설을 무시하고 구약을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의 책으로 본 정통보수적인 구약주석학자였고, 텔리치도 엘랑엔 교수로서 구약의 영감설에 근거한 견해를 피력한 보수적인 학자들이었다. 두 학자는 공동으로 구약의 주석을 펴냈고 이 주석은 오늘날까지 보수신학의 목회자들에게 애용되고 있다.

알리스(Oswald T. Allis, 1880-1973)은 독일 베를린대에서 1913년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프린스턴신대에서 1910-1929년 전임강사와 조교수로 가르치다가 좌경화에 반대하여 메이천을 따라서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설립하고 교수(1929-1936)로 봉직한 복음주의 학자이다. 그는 모세가 모세오경을 저술했다는 『모세오경』을 출판하였다. 그의 저서가 많이 인용되었다. 스코트랜드 출신의 제임스 오르(James Orr)의 1906년 문서설 비판 저서 Problems of the Odd Testament Considered with reference to Recent Criticism)도 인용되었다.

고봉에게 있어서 성령은사는 눈물 목회로 나타났다. 1944년부터 시작된 고봉의 눈물 목회는 사역 기도회를 통해서 민족의 해방을 준비했고, 해방 이후 남북 분단의 정치적 혼란기에 월남 피난민들과 혼란의 와중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비애를 달래 주었다. 3백만 구령운동의 중심은 남대문 교회였고, 중심 인물들은 남대문교회의 신자들이거나 남대문 교회 내의 대한신학교 학생들이었다. 그는 젊 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70명의 전도 목사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복음 전도 집회를 하였다. 이 때 월드비전(World Vision, 선교회) 창설자요 세계적인 부흥사 이성봉, 김인서, 박재봉, 손양원 목사 등이 설교하였다.

고봉은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또는 설교 중이나 강의할 때, 심지어는 상담할 때에도 자주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흘린 눈물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흘린 높은 차원의 눈물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한국의 예레미야” 혹은 “눈물의 선지자”로 추앙받았다.”

고봉은 대한신학교 강의 시간에도 자주 눈물로 강

의를 하였다고 한다.

고봉은 교회의 부흥을 강조하였다. 부흥을 위해 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개혁신학의 전통이 가르치는 바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강조하였다. 고봉은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에게 하는 것, 평화로 보았다. 그는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실현되고 있습니까. 화평으로 연합한 중에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서로 맺어지며 평화의 관계가 성립됩니다”고 하였다. “진정한 평화는 언제나 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즉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부터 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영적 일치의 이름입니다.” 고봉은 성령 받음을 강조한다: “오늘도 우리의 급선무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 우리 성도들이여, 한 마음으로 힘써 항상 기도하되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함없이 성령이 오시지 않고 또한 역사는 중지되는 것이니, 우리는 쉬지 말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은사 지속론

고봉은 자신이 치유 은사를 직접 사용한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부흥전도자로서 조나단 웨드 워즈가 일으킨 대각성운동처럼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은사 지속론의 입장에 선다. 그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일제하에서는 나리의 독립을 위하여 해방 후에는 남북 분단과 이념적 분쟁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은 그가 받은 성령의 은사라고 보아진다.

고봉이 남대문교회를 사임하고 창동교회를 개척했을 때 많은 남대문교회 성도들이 이전해왔는데 그중에는 웃날 전도관을 창설하여 이단 교주가 되어 교계에 물의를 일으킨 박태선 집사가 있었다. 박태선은 초창기에는 흡집을 때 없는 훌륭한 교인이었다. 언제나 겸손했으며, 모든 일에 열심이었다. <계속>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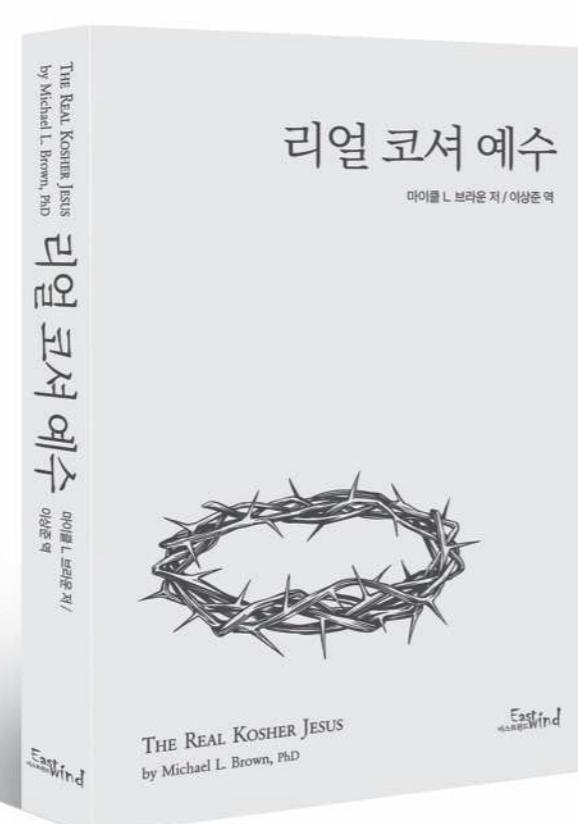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65,000원 /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일보사

미주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The Real Kosher Jesus (원제)
マイケル L. ブラウン / 이상준 역 | 이스트원드 | 324쪽 | 15,000원

신간 『리얼 코셔 예수』

2천년 동안 교회에 감추어진 메시아 예수님의 비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저자 마이클 브라운 박사(Michael L. Brown)는 히피족의 삶을 살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를 정통 유대인들과 랍비들에게 둘러싸인 환경 속에 두셔서, 그가 믿기 시작한 때부터 유대인 공동체의 반대와 비판과 시험을 겪게 하셨다. 그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구하면서 수십 년의 신학적 연구와 유대인들과의 끊임 없는 토론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반대 의견을 이겨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메시아닉 유대인 변증가가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 그 누구와도 다른 랍비
- 죽임 당하신 어린 양
- 고난 당하는 메시아의 비밀
- 제사장 메시아의 비밀
- 모세보다 위대한 선지자의 비밀
- 숨겨진 지혜의 비밀

역자 이상준

저서: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복음』, 『아빠와 말씀을 1』, 『복음서의 히브리적 배경』
역서: 『야말의 책 1』, 『야말의 책 2』, 『유대인의 눈으로 본 예수』

East Wind
이스트원드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우리들은 봉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빛, 복지시설 탐방

[인터뷰] 다일천사병원 김현자 부원장

다일복지재단이 설립한 다일천사병원은 병원 문턱이 높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무의탁 노인, 취약계층을 위한 최초이자 유일한 개신교 전액 무료병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사명 받은 우리들은 봉사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다일천사병원 김현자 부원장을 만났다. 아래는 일문일답.

다일천사병원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궁금하다.
다일공동체는 1989년 무료급식 운영과 함께 무료진료를 해왔다. 이사장 최일도 목사님은 병들어 죽어가지만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등에 업고 병원에 갔다가 받아주지 않아서 되돌아오는 빼아픈 경험을 자주 했다. 그들이 돈 한 푼 없고 아무 연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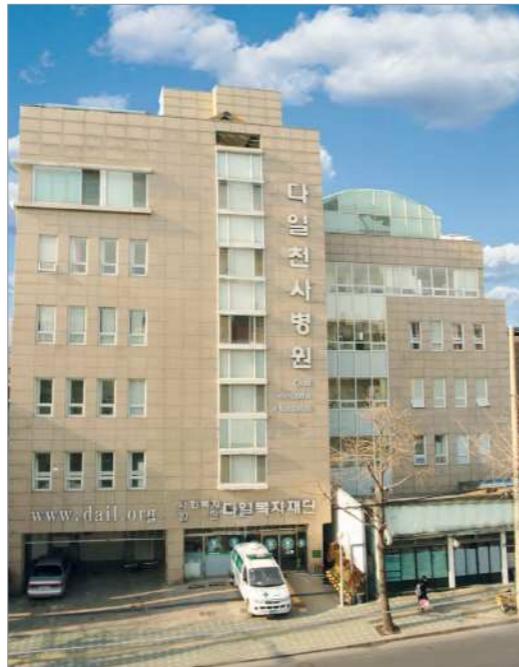
어느 날 혼자된 사모님이 중풍으로 쓰러져 최 목사님이 그분을 모시고 무료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성가복지 병원에 갔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수녀가 “개신교 교회와 성도 수가 얼마나 많은데 왜 이번 이곳으로 옵니까?”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최 목사는 ‘병원을 운영하고 싶다’라는 소원을 품게 됐다.

그 후 1993년 11월, 청량리 뒷골목 직업여성과 주민들이 모아준 47만5000원과 다일공동체 가족들이 모은 1천100만 원이 병원 건축을 위한 최초의 현금으로 드려졌다.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천사(1004) 운동을 실시해 모금했고, 국내외에서 뜻을 같이하는 천사후원회원이 점점 늘어났다. 그렇게 10년의 천사이에 운동 끝에 2002년 10월 4일, 다일천사병원이 개원했다. 천사병원은 개미군단의 섭시일반 정신으로 설립된 자선병원으로, 지금도 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원과 도움 없이 순수 민간 후원금만으로 유지되는 국내 유일의 전액 무료병원이다.

다일천사병원을 이용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초반엔 의료급여 1종2종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모두 치료했다. 지금은 사회복지체계도 잘 갖춰져 이들을 위한 의료혜택이 좋아졌다. 그래서 현재는 제도권 밖에 있고, 정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주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 외국인 불법체류자, 노숙인, 행렬자, 주민등록말소자들이다.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들을 선별해 진료한다.

사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은 보험이 있는 것 이 더 손해다. 보험이 있으면 병원비와 약값으로 2천500원~3천 원을 내야 하는데 그 돈조차 없어



다일천사병원 전경 ©다일복지재단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데려온 아시아 어린이들 ©다일복지재단

서 병원에 못 가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담 후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원 초기에는 우리나라 국민, 노숙인이 많았는데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외국인 중에는 평택, 인천 등 면 곳에 사는 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오기도 한다.

다일천사병원의 진료과목은 무엇인가.

천사병원은 내과, 정신과, 산부인과, 치과를 기본과목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자원봉사의료진과 협력해 정형외과, 아비인후과, 비뇨기과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 외에 천사병원 진료과목에 없는 내용은 감사하게도 전원 의뢰를 통해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개원 때부터 청량리역 5~10분 이내에 있는 개인병원 원장님들께서 무료료 진료를 봐주시겠다고 해서 의뢰와 함께 환자를 그 병원으로 보낸다. 이 중에는 방사선과 CT 활영까지 무료로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도 있다. 환자를 보내면 다음과 같은 후 의뢰서 밑에 코멘트와 약 처방 내용을 적어준다. 그러면 천사병원에서 약을 제조해준다.

다일천사병원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직업이 대학병원 수술실 전문 간호사였다. 수술실에 있으면서 심장수술과 뇌수술까지도 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천사병원에는 2004년 1월에 정식으로 입사했고, 그전에 아이를 키우며 6개월간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봉사할 때, 천사병원이 워낙 작은 병원이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보통 수술은 책임자가 있어야 하는데 봉사자만 있었고, 적합한 책임자도 없었다. 마침 수술실 전문 간호사를 한 명 뽑는다고 해서 집도 가깝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 입사했고, 벌써 16년이 흘렀다.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천사병원에 데

려다 놓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 과거에 아버지가 미국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을 하셔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자랐다. 그때의 일을 잊고 살았는데, 네팔에 해외 의료봉사를 갔을 때 그 기억이 떠올랐다. 사무실에서 의료용품을챙기고 있을 때 유리창에 아이들이 매달려서 뭐라도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는 데, 그 모습이 어릴 적 내 모습이었다. 선교사님들을 쫓아나니면서 초콜릿 달라, 과자 달라고 했던 모습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찡했다. 그때부터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좋은 일이고, 사명을 다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

천사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맞다. 상주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다. 이분은 천사병원에 의사 면허가 들어가 있어서 다른 곳에서 활동을 전혀 못 한다. 원래 의사 월급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오셨다. 인건비도 최소 교통비밖에 못 드리는 데 그 비용마저 다 후원금으로 내시고 해외 선교를 위해 몇 개월에 한 번씩 많은 후원금을 내시기도 한다. 국경없는의사회 활동도 오래 하시고, 종종 날마다 전쟁터에 가서도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나의 경우도 급여에 관해서는 들어올 때부터 일절 요구하지 않았고, 주시는 대로 받고 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기억에 남는 치료 사례가 있다.

2005년에 진행한 ‘BCP(뷰티풀 체인지 프로젝트)’가 많이 기억에 남는다. 이 프로젝트는 해외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순구개열 수술을 해주는 사업이었다.

사업을 위해 해마다 카보디아, 필리핀, 네팔 등에 있는 아이들과 보호자를 함께 데리고 왔다. 아이들은 대부분 호적신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본국에서 호적부터 주민등록까지 완료하고, 여권을 만들어 비행기를 태워서 데리고 오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 프로젝트에 서울대 치대 학장님이 재능기부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천사병원 수술실에서 치과 수술과 성형외과 수술을 같이 했고, 약 153명 정도의 아이들이 수술을 받았다. 수술해야 할 아이들이 많아서 하루에 두 명씩, 밤 11시~12시까지 수술한 기억이 난다.

이렇게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외모가 변하면서 인생까지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하는 프로젝트였다.

BCP 외에도 천사병원에서 수술할 수 없는 심장병, 척추측만증(옆굽음증) 등의 큰 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병원비를 모금해서 대학병원에 연계하기도 했다. 5~6살 때 심장수술 한 카보디아 어린이가 있는데, 지금은 중학생 돼서 우리 꿈과(교육지원)에서 잘 생활하고 있다. 해외봉사를 가면 만나기도 하는데 이럴 때 많은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다.

천사병원 수술실에서 10년 정도 수술이 많이 이뤄졌다. 자궁 수술, 위암 수술도 한 적이 있다.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의료사고 없이 모든 수술이 잘 마쳐져서 참 감사하다. 의료봉사를 오시는 분들은 서로 처음 수술을 해보시는 분들이다. 세팅을 미리 해놓으면 수술 30분 전에 와서 처음으로 얼굴을 보고 수술을 하는데도 손이 잘 맞아 무사히 끝났던 수술들이 기억에 남는다.

지금까지 운영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나.
가장 먼저는 병원을 세워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후원자들의 후원, 기도, 사랑이

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감동받는 것 중 하나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전화로 후원하거나, 이를 도안 적힌 봉투를 건네고 가는 일이다.

한번은 어떤 분이 병원에 오셔서 봉투 하나를 주고 갔는데, 뜯어보니 수표 2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사회복지사가 뜯어갔는데 정보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해서 겨우 설득해 전화번호를 받아 왔다. 재단의 기록을 토대로 번호와 이름을 매치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의 사연은 이러했다. 본인은 혈액신장투석을 받는 환자이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한다고 했다. 자신의 딸이 심장병을 앓았는데 과거에 TV에 출연해 최 목사님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지금은 건강해져 직장도 다닌다며 은혜를 갚기 위해 10년 동안 일하면서 모든 적금 2천만 원을 후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연에 직원 모두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고, 병원 개원 10주년 때 이분을 초청을 해서 뵙 적도 있다.

천사병원이 무료로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후원자분들이 계시기에 천사병원이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치료받는 분들도 후원자가 있다는 걸 알고 감사함을 많이 표현한다. 필리핀 사람 중에는 한국에 와서 의지할 곳도 없고 치료받을 때도 없었는데, 천사병원을 만난 것이 정말 감사하고 생애 최고의 행복이었다고 고백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이도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보람도 느끼고 행복하다.

운영 시 어려운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나.

국가로부터 의사 인력이 지원되면 좋겠다.

현재 병원 내에 상주 의사 1명, 간호사 2명, 약사 1명이 있다. 인력이 많지 않은데, 특히 의사가 부족하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채용하기엔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대부분 의료봉사자의 재능기부로 운영하고 있다.

간호사의 경우 서울시에서 기간제 간호사를 한 명 파견해줬다. 간호사가 훈련되었을 때는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없을 정도로 분주했는데, 지금은 행자원, 외근, 행정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여간이 마련돼서 정말 감사하다.

의사도 간호사처럼 공중보건의나 코이카 군대 체복무 등의 인력을 이곳에 3년씩 파견해주는 등의 지원이 생기면 좋겠다.

앞으로의 비전과 사명은 무엇인가.

천사병원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명과 비전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소중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게으르다고 책망받지 않도록 열심히 사명을 다하는 것이 비전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실 때까지 천사병원과 함께할 계획이다.

서다은 기자

기독시작일 2020 0601

일천일 기독기간
2020.6.1~2023.8.10

우리 함께 변화하자 복음으로!
도전하자 믿음으로!
사우자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자 기도로!
세우자 반석 위에!

제3차 나라사랑 전성도

일천일 24시간 특별기도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14:38)

하나님은 우리를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일천일동안 24시간 릴레이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 온 국민과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에 참여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전태진

특별 기도제목

- 한국교회 본질회복과 삼합(화합·연합·통합)을 위해
-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
- 국가의 경제·안보·안정을 위해
- 진리 안 남남·남북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해
- 기독교 언론의 사명 감당을 위해
-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소멸을 위해
- 나라를 사랑하는 건강한 지도자 세움을 위해
- 한국교회 복음적 예배 회복을 위해

마켓

플레이스

홈페이지 www.cplace.co.kr 전화번호 02-6052-6791 이메일 riseup0731@gmail.com**부동산****안양 교회임대**

- 매물위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 매물크기: 2층: 45평 지층, 3층: 20평
- 거래가격: 총 마다 가격이 다름(연락요망)
*즉시목회 가능 주거 가능

연락처 ☎ 010-3412-3976

초역세권 교회매매

- 매물위치: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능곡동)58
- 거래금액: 9억1천만원(재정부와 상의후
3천~5천사이 조절 가능)
- 매물크기: 분양평수 170.38평(실평수 98평)

연락처 ☎ 010-2765-1601

전원주택 / 작은교회

- 매물크기: 대지: 전용면적 186평
건축물: 전체 74평
- 거래금액: 9억원 (900.000.000)
- 매물위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고개에서
약 4km)

▶문의 ☎ 010-2282-1119(건물주)

부천 교회임대

- 거래금액: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30만원
- 매물위치: 경기도 부천 중동(부흥로200)
- 매물크기: 221.66m² (약 65평)

연락처 ☎ 010-8870-4049

개척교회로서는 최상의 조건

- ◎매물구분: 임대
- ◎매물크기: 55평
- ◎거래금액: 2000/85 시설비-2천(조정 가능)
- ◎매물위치: 인천시 부평구 영성중로 36번길3
- ◎아파트 지역, 초등학교 정문 앞
- ◎시설비는 5천정도. (시설비 2천-조정 가능)

▶연락처 ☎ 010-5303-9191

위치좋은 교회매매

- ◎매물크기: 지분- 249.4m² (75.44평)
/상가- 122.94m² (37.18평) (유아실, 목양실)
- ◎교회 앞 아파트 단지, 주변에 문화예술 회관과
체육시설(수영장, 야구장, 테니스장)이 있음.
- ◎매물위치: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한승APT 상가

▶연락처 ☎ 010-9626-9175

유동인구 많은 교회임대

- 매물위치: 서울시 광진구 노른산 시장 앞
- 1. 노른산시장 앞 유동인구 많음
- 2. 인테리어 잘 되어 있음 / 카페같은 분위기
- 3. 방음이 잘되어 있음.
- 6. 예배실, 회장실 1개, 부엌, 사무실 겸 목양실, 유
아실, 창고 3평, 목사개인기도실

▶연락처 ☎ 010-8884-0291

영흥도 교회매매

- 매물위치: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674
- 매물가격: 27억 (분할매매 가능)
- 매물크기: 대지 (920/278.3평)

연락처 ☎ 010-4759-5946

신축교회 긴급매매(제주)

- 매물위치: 제주 서귀포시(영어교육도시 내)
- 교회운영 즉시 가능
- 영어교육도시: 120만평
- 국제학교(3개) 운영중 (미국, 영국, 캐나다)
- 공동주택(단지내) 3,000세대
- 거주인원 10,000여명

▶연락처 ☎ 010-5779-2368

사당동 교회임대

- 위치: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119
- 매매가: 보증금 4,000만원/월세 140만
- 매물크기: 165.00m² (약 50평)

*대부분의 성구와 시설을 그대로 놓고 갑니다.

연락처 ☎ 010-6253-0273

최고입지 교회매매

- 대지(303평. 2필지)- 종교용지 271평 + 밭 32평
- 건물: 교회- 1층(62평)- 소예배실, 식당, 공부방,
관리실, 회장실, 2층(62평)- 본당. 사무실
사택(29평)- 방3, 거실, 주방, 회장실, 다용도실
- ◎거래금액: 7억원
- ◎매물위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연락처 ☎ 010-3727-6607

고급주택 매매

- ◎매물크기: 대 2805m²
+최고급 유럽식 단독주택 2동
- ◎거래금액: 15억 ◎매물위치: 경기도 파주시
[매물장점]
- 천혜의 자연경관, 조경완벽, 인프라최상 숙소,
-기도원, 연수원, K팝숙소 및 연습실 최적

▶연락처 ☎ 010-4830-7383

카페 교회임대

- ◎매물크기: 20평 ◎거래금액: 500/25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주APT상가내
[매물장점]
- 4층 건물에 2층, 바로앞 2300세대 아파트 있음
- 목양실 있음 전기판넬 있어 생활 가능
- 처음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좋은 기회

▶연락처 ☎ 010-4979-7478

오산 최고입지 교회매매

- 매물위치: 경기 오산 단지내상가
해당층수: 3층의 3층 304호
- 난방방식: 도시가스
- 상가용주차장/ 아파트 건물주차장이용.
잔금치료고 입주/협의바람.

☎ 010-4009-1597

신문 공고**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일수(640211-1*****) 2020. 1. 11. 사망

최후주소: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미정
빌라)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0느단2379 상속한정승인 (서울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0. 7. 22.
- ◎청구인: 김혜영
- ◎공고기간: 2020. 7. 27. ~ 9. 27.
- ◎신고처: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248

2020. 7. 27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미경(750429-2*****) 2015. 9. 15. 사망

최후주소: 대전 동구 태전로 70-29(삼성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0느단814 상속한정승인(대전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0. 7. 13.
- ◎청구인: 1. 진민민 2. 진수진
- ◎공고기간: 2020. 7. 27. ~ 9. 27.
- ◎신고처: 대전 동구 태전로 70-29(삼성동)

2020. 7. 27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미경(750429-2*****) 2015. 9. 15. 사망

최후주소: 대전 동구 태전로 70-29(삼성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0느단878 상속한정승인(대전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0. 7. 13.
- ◎청구인: 진재민
- ◎공고기간: 2020. 7. 27. ~ 9. 27.
- ◎신고처: 대전 동구 태전로 70-29(삼성동)

2020. 7. 27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무승(500424-1*****) 2008. 9. 5. 사망

최후주소: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185번길 60 (둔산동, 둔산풀리)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0느단1269 상속한정승인(대전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0. 7. 21.
- ◎청구인: 1. 김영자 2. 박문숙 3. 김영문
- ◎공고기간: 2020. 7. 27. ~ 9. 27.
- ◎신고처: 대전 고산로 185번길 31, 106동 1806호
(당정동, 청천마을성원아파트)

2020. 7. 27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현수(850803-2*****) 2020. 5. 11. 사망

최후주소: 수원시 장안구 하늘로11번길 12 (천천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0느단1054 상속한정승인(수원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0. 7. 15.
- ◎청구인: 1. 김덕도 2. 정기묘
- ◎공고기간: 2020. 7. 27. ~ 9. 27.
- ◎신고처: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5길 4, 3동 303호
(옥당연립주택)

2020. 7. 27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전성미(660815-2*****) 2019. 6. 15. 사망

최후주소: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 1길 32-5, 504호
(두정동, 해피빌)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0느단357 상속한정승인(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0. 7. 20.
- ◎청구인: 1. 이아진 2. 이아진 3. 이준희
- ◎공고기간: 2020. 7. 27. ~ 9. 27.
- ◎신고처: 강원 양구군 양구읍 청진로 49, 105동 1005호
(하링턴플레이스)

2020. 7. 27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진철(500123-1*****) 2017. 5. 25. 사망

최후주소: 인천 남동구 석관로 101번길 38-8(간석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0느단10828 상속한정승인(인천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0. 7. 22.
- ◎청구인: 조옥순, 김명윤, 김현주
- ◎공고기간: 2020. 7. 27. ~ 9. 27.
- ◎신고처: 인천 미추홀구 토금북로 17번길 13, 205호
용현동, CASA24)

2020. 7. 27

분실 공고

분실 내용: 아파트 공급 계약서

부동산 표시: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08-16번지
롯데캐슬클라시아 113동 412호

공고인: 이창선(010-2155-7162)

2020. 7. 27

분실 공고

분실 내용: 오피스텔 공급 계약서

부동산 표시: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21,
더 오페라 2차 1동 1525호

공고인: 이명옥(010-8812-1169)

2020. 7. 27

농장매매

- ① 안성 일죽 화봉 토지 5,610m²
대지 1.980m² 주택2층 창고1동
목장 1,485m² 조용한 한정식당 위치

- ② 충주 2층 주택건강원 소목장토지
2차선도로접 1,485m² 4억2천

- ③ 음성 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신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신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편하고 쉬운 길을 달라고 요구하는 세상에서 개척의 자리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시퍼렇게 살아계심의 증거로 드린 안호성 목사의 삶과 사역을 담아내고 있다.

저자는 어린 시절 빨리 목회자 가정을 떠나 독립하는 꿈을 꾸며, 부모님이 원하시는 신학을 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성실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탕자처럼 살았던 시간들을 고백한다.

영국과 일본 유학 시절 이유도 없이 찾아온 육체적 고통과 질병, 큰 대수술로 죽을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 내 인생을 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탕자에서 목회자의 길로 돌아왔다고 한다.

어떻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된 게 이렇게 하나님도 없을까? 하나님 뜻하신 대로 돌아오게 되면서 인생을 돌아보며 느낀 결론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고 계획하고 예상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를 끌고 그는 고백한다.

“내 뜻과 내 계획, 내 생각이 깨어지면서 그것 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그 놀



라운 축복,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그런 존귀한 삶을 살게 되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1-3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나는 사명으로 삶 장이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에는 저자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열정과 담대함으로 혼자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예배와 전도에 목숨 거는 교회로 성장해간 스토리가 담겨 있다. 4부 ‘Keep Going’은 우리가 끝까지 불들어야 할 우리 인생의 가치와 신앙의 풋대에 관한 저자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우리가 인생의 다음 스텝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가능성, 관계, 상황, 처지, 감정, 관계들이다. 그런데 인생의 발걸음은 인도한 것은 딱 하나! 하나님과의 ‘콜링’ 그 사명이었다고 한다. 한 번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는 마을에 헐로 개척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고 서원했던 것이 있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보내주신 양의 젖으로만 내 배를 채우겠습니다.”

안 목사는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개입하지 않으면 죽겠다는 신뢰, 물

질이나 영향력을 주었을 때 그 안전함에 대한 신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목회 현장과 교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확신한다. 또한, 개척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을 위로하며 “만드시 끌이 있다

는 것”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만 두려워 하면 세상과 사람이 두렵지 않다”고 용기를 준다.

그는 지금 이 시대를 골리앗 앞에서 있는 이스라엘 군대로 비유한다. 시대의 대세에 고개를 숙이고 물질, 권력, 시대적 통념 가운데 무릎 꿇은 채로 자꾸 포기하고 절망과 패배를 익숙하게 받아들이려는 시대, 외침과 조롱에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행전하는 영적 영웅들이 실조되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만 전설 신화처럼 존재하는 분, 문자·활자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견고해 보였던 여의고를 허물어뜨린 하나님에게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한다.

그는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 처지, 형편이라는 시대의 골리앗은 분명히 두려운 존재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다윗의 외침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이다.

“인생의 승패가 스페인과 시대적 풍조, 가능성, 확률, 분석, 그래프에 달려 있지 않다.”

안 목사는 한번 영적으로 승리하면 그다음 골리앗과의 대전과 항전이 쉬워지지만 한번 상황과 처지, 형편에 짓눌려 골리앗을 피해버리면 그다음 골리앗을 만날 때 상대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만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당신이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할 수 있다’라는 마음만 가진다면 이 시대에도 다윗이 아닌 골리앗이 박살 나서 쓰러질 것이고, 이 시대의 다윗은 바로 당신이 될 것입니다.”

의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어떤 인간적인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서원하고 시작한 목회의 길, 일부러 어렵고 힘든 조건을 택하고 편하고 쉬운 길은 주어져도 거절하며, 심장을 뛰게 하는 사명을 헌신해 하나님은 시퍼롭게 살아계심을 증거한다.

한편 저자 안호성 목사는 충북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후 순복음총회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MDiv)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04년 울산온양순복음교회를 개척해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CBS 〈파워특강〉과 〈울포원〉, CTS 〈4인4색〉, 극동방송 〈극동부흥회〉 등 방송사역과 집회사 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황지현 기자

7월, 작가들의 말말말

당신은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에 게 제발 들어와 달라고 애원하나요? 아침에 커튼을 걷고 태양에게 집 안에 빛을 비춰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나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창문을 열면 바람이 알아 들어오죠. 커튼을 걷으면 햇빛이 저절로 들어와요. 성경은 하나님의 평강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으로 잔잔히 흘러 들어와요. 걱정거리가 있나요? 웬지 불안한가요? 오늘 골치 아픈 일이 있나요? 혼자 힘으로 걱정을 펼쳐 내려고 애쓰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도록 마음을 열어요. 그러면 햇빛이 깜깜한 집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가득 찰 거예요. *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샐리 로이드 존스 〈내 마음에 두신 노래〉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의 복음을 기독문보다는 구원론적 용어로 특별히 칭이라는 그림 언어로 전개한다. 하지만 다윗적 메시아로서 모든 민족들 위에 행사하시는 예수님이 구원의 통치를 언급하는 이 수미상관 구조로써, 바울은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들의 메시아적 왕으로서 가져오셨고 지금도 가지고 오시는 종말론적 구원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바울의 칭의의 복음을 예수가 하나님의 원세를 행사하는 아들로 세우심을 받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왕적 권세를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부왕(副王)으로 세우심을 받은 다윗적 메시아로서, 모든 민족들 위에 구원의 통치를 행하심의 맥락에서 또는 그러한 용어로 해석할 때만 그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진가를 제대로 헤아릴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김세윤, 〈칭의와 하나님 나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손입니다. 내 생각만 성령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100퍼센트 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어떤 방향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끌고 가시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뜻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를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정하신 방향대로 교회를 이끌어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손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옥한흠, 〈사도행전 2 : 교회는 이길다〉

비대면 대출·도서 배달… 도서관에 39억 원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된 3차 주가경장예산 가운데 도서관 분야에 약 39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승차대출 등 공공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지원 25억원,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한국수어영상도서 등 대체자료 제작 13억 원 등 도서관 분야에 올해 3차 추경 예산 38억90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할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사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등의 정부 조치에 따라 공공도서관 비대면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승차대출(드라이브스루 대출), 도서배달, 예약대출, 지역서점 희망도서 대출 담당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도서관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학습 증가에 따라 장애학생을 위한 온라인 독서콘텐츠도 제작지원한다. 초·중·고등학교 필독도서와 교과서 내 문학작품 등 2000여건을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영상도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휴관을 이어오던 세종시 어진동 국립세종도서관이 5개월 만에 문을 연 지난 22일 시민들이 오랫동안 참아왔던 독서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 © 뉴시스

와 장애인 접근 전자책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을 채용해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추경 예산으로 국민들이 안전한 문화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규 기자

교보 3주 연속 1위 ‘김미경의 리부트’

‘김미경의 리부트’가 3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7월 3주차 베스트셀러 1위인 이 책은 자기계발 강사 김미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달라진 일상과 성장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그 역시 달라진 세태로 말미암아 고민이 많았다면서, 특유의 입담으로 독자들을 암도해 나간다.

김승호의 돈의 속성은 판매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한 계단 상승한 3위에 올랐으며, 경제 유튜브 채널 출연자 오경연의 ‘부의 대이동’이 출간과 함께 5위로 진입했다. 이번주에도주에도 경제경영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졌다는 평가다.

드라마의 원작소설이나 드라마 속 주인공이 언급한 책이 단숨에 베스트셀러에 순위에 진입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먼저 소개된 그림 동화 ‘악몽을 먹고 자란 소년’, ‘좀비 아이’ 등이 출간하자마자 각각 종합 29위, 35위에 진입했다.

남정현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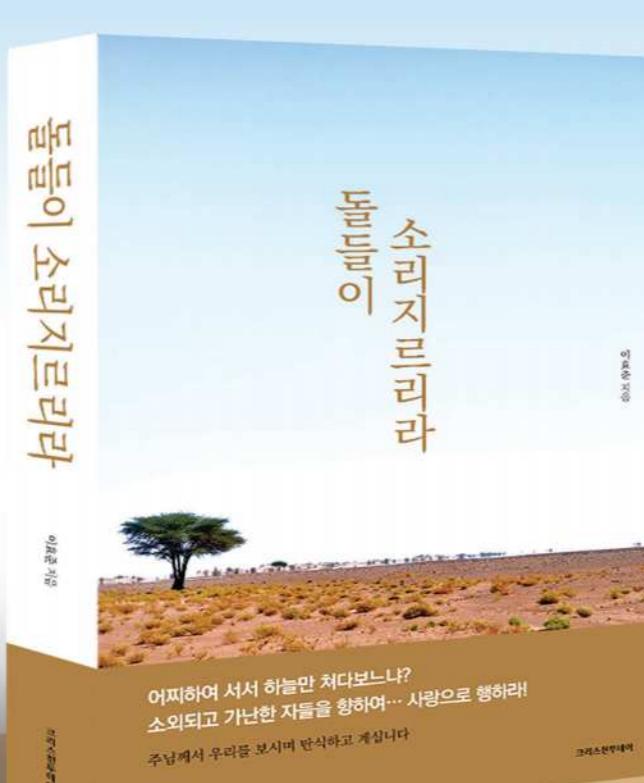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누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정교(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신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바이블지식IN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가

질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가 아니면 믿음에 행위를 더해야 하는가?

답변: 어찌면 이 질문은 모든 기독교 신학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물음은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를 분리시킨 종교개혁이 일어난 요인입니다. 이 질문은 본질적으로 성경적 인 기독교와 대부분의 '기독교' 이단 종파들을 가르는 핵심 내용을 다룹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믿음과 그에 더해진 행위에 의한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 받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어떤 것

들을 더 해야 구원을 받는가?'

'오직 믿음인가 아니면 믿음과 그에 더해진 행위인가'의 문제는 일부 조화되기 어려운 성경 구절들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로마서 3장 28절, 5장 1절과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야고보서 2장 24절과 비교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과 야고보(믿음과 행위로 얻는 구원)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다고 독단적으로 말하는 반면 애 2:8-9 야고보는 믿음과 그에 더해진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이 문제는 야고보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검토해보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선행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약 2:17-18).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에는 변화된 삶과 선한 행위들이 따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약 2:20-26).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과 행위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진정 의롭게 된 자는 삶에 있어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삶에 선행이 없다면 그 사람

은 아마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닐 것임니다(약 2:14, 17, 20, 26).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믿는 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맺어야 하는 좋은 열매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해 구원 받았음을 말한 후에 애 2:8-9 우리가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알려줍니다(약 2:10). 바울도 야고보만큼이나 우리의 변화된 삶을 기대합니다. "그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오늘의 말씀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믿음의 영조들을 찾아서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II

가톨릭에서 묵주 기도를 올릴 때는 예수와 마리아의 생애에 있었던 스무 가지 '신비'에 관해 묵상하는 시간이 있다. 그 신비들은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요일마다 기도에 포함된다. 환희의 신비(Joyful Mysteries)는 수태고지, 성모방문, 예수탄생, 예수봉헌, 성전에서 소년 예수를 찾음이다. 깨달음의 신비(Luminous Mysteries)는 예수의 세례, 가나의 결혼, 왕국의 선언, 변형, 죄후의 심판이다. 슬픔의 신비(Sorrowful Mysteries)는 엡세마네의 고뇌, 매질, 가시면류관을 씀, 십자가를 짊어짐, 십자가에 못 박히다. 영광의 신비(Glorious Mysteries)는 부활, 예수승천, 성령강림, 성모승천, 마리아가 '천국의 여왕'으로 즉위함이다. 낯익은 가톨릭 기도문의 시작 부분인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Hail, Mary, full of grace)"는 누가복음에서 인용한 구절인데, 라틴어의 아베 마리아(Ave Maria)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구절은 수많은 작곡가들이 음악으로 만들었다.

기도문 이외에도 예수의 어머니는 수많은 그림과 조각의 주제가 되었다. 미술에서는 흔히 마돈나(Madonna, 'my lady'라는 뜻)라고 부르며, 여기 예수를 안은 모습으로 자주 표현한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을 담은 작품도 많다. 가톨릭에서는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로부터 9주일 뒤, 즉 3월 25일을 수태고지의 날로 정하고 있다. 또한 마리아가 친척인 엘리사벳을 방문한 장면(성모방문, 5월 31일), 혹은 요셉과 양치기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있는 장면(크리스마스)도 흔히 그림으로 묘사된다.

그밖에 가나에서의 기적, 십자가 처형을 그린 작품에도 마리아가 등장한다. 어떤 교회들은 마리아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



니가 섰는지라"라는 성서의 구절이 함께 있는 '기념 칭문'을 만들기도 한다. 이 칭문은 대개 누군가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헌정된다. 죽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에도 마리아가 있다. 마리아가 죽은 그 리스도를 안고 있는 모습은 피에타(Pieta)라고 부르는데, 가장 유명한 피에타는 바티칸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조각이다. 이 사건들은 모두 성서에 나온다.

그밖에 로마가톨릭에서 기념하는 다른 축일들도 있다. 이를테면 원죄 없는 임태, 승천, 마리아의 즉위, 성모 마리아 대축일 같은 것들이다. 가톨릭교도들은 흔히 마리아를 BVM(Blessed Virgin Mary), 즉 '축복의 성모 마리아'로 줄여 부른다.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맡거나 그녀에게 헌정된 교회들은 수도 없이 많다. 대개 그런 교회의 벽에는 성모성당(Lady Chapel)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성서에는 마리아의 부모가 나오지 않지만,『야고보 원복음서』라는 아주 오래된 문헌을 보면 요아힘과 안나라고 되어 있다. 로마가톨릭은 그들을 7월 26일에 기념한다. 동방정교의 축일은 9월 9일이다.

수많은 미술 작품 이외에 마리아는 예수의 생애를 다른 문학 작품에도 자주 등장한다. 솔레인 애슈는 마리아에 관한 베스트셀러 소설을 썼다. 작가 마조리 힙스(Marjorie Holmes)는 젊은 마리아와 요셉을 다룬 『갈릴리에서 온 두 사람 Two from Galilee』을 썼다. 그런 작품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마리아는 예수의 소년 시절을 다룬 앤 라이스(Anne Rice)의 소설 『주님 그리스도: 이집트 탈출 Christ the Lord: Out of Egypt』에서 핵심 인물로 나온다.

예수에 관한 영화에서도 마리아는 중요한 인물이다. 프랑코 제페렐리(TV 시리즈 「나사렛 예수」)나 멜깁슨(「파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독실한 가톨릭교도가 감독한 영화에서 마리아는 복음서에서 전하는 것보다 더 비중 있는 역할로 나온다. 신교도들도 그다지 반대하지 않는다.

신약성서의 시대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무척 흔했다. 아랍어의 마리안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에 해당한다. 신약성서에는 예수의 어머니 이외에 적어도 다섯 명의 마리아가 더 나온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문화권에서 아주 흔한 여자 이름이다.

[출처] 들녘 출판사 (『바이블 키워드』, 2007. 12. 24., J. 스티븐 랭, 남경태)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도움을 주는 방법 3가지

1. 의무감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기도하라

때로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나아가 쉼과 안식을 얻고자 하지 않고, 기도를 일이나 하나님의 의식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방법이 된다면,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잘 이해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

3. 기도는 우리가 해야하는 일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것이다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에는 변함이 없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마6:8)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필요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신다. 기도를 통해 더욱 그분의 뜻과 능력과 신실함을 체험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마음이 하는 7가지 마음회복력

내 마음의 칭조자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 이후 더 업그레이드된 박종기 목사의 두 번째 마음과 기도의 책
코로나19(COVID-19)를 극복하는 마음을 위한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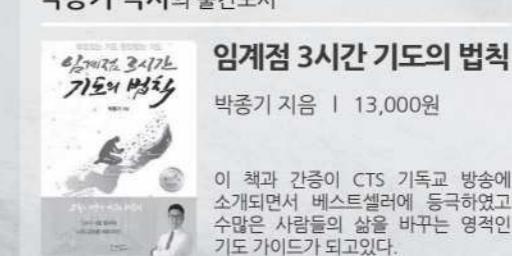
책서평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를 마음의 공동창조자로 부르심을 역설한다. 또한 생각을 창조하는 존재로 자음 받은 우리의 할 일은 모든 상황에서 선택이며 그 선택이란 마음이 회복하도록 7가지 – 담대함, 온전함, 온유함, 경건함, 악함, 행함, 사랑함 –의 키워드로 설명하고 예를 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그래서 누구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돋는 마음전문가를 위한 안내서이다.

저자소개

박종기 목사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와 한세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 2015년 경기도 구리시에 우리네교회를 개척해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미국 Midwest University에서 Mental Health Counselling(M.A) 과정 중이다. 기도 중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을 창안해 세미나와 집회를 통해 기도 운동을 확산시키는 사업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으며, 성도들의 마음 치유에 대한 비전을 품고 '마음학교·살롱캠프'도 함께 섬기고 있다. '홀리샤워(Holy Shower)'라는 찬양사역을 통해 디지털 앤솔러(1~5집)을 제작, '너를 교회라 부르리라' '내 마음의 창조자' '오순절의 부흥'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 '주의 권세 내게 임했네' 등의 찬양곡을 발표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이 있다.

박종기 목사의 출간도서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
박종기 지음 | 13,000원

이 책과 간증이 CTS 기독교 방송에 소개되면서 베스트셀러에 등극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영적인 기도 가이드가 되고 있다.

YouTuber [내가 매일 기쁘게] 임계점 3시간

살아나는 임계점 기도 강의와 집회를 신청할 교회는 010-4002-8291로 문의해주세요.

가정예배문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본문 : 요12:1-8
찬송가 : 찬송가 346장(새찬송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본문은 '베다니'가 난한자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베다니 문동이 시몬의 집, 문동병은 불치병입니다. 이 당시 문동병자는 벼릴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병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도 가까이 가기 꺼려하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와 식사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압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때 죄인인 한 여자가 울며 눈물로 예수의 발을 쳐지고 귀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린 것은 분명 낭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은 사랑을 인하여 모든 것

을 비워내는 세계입니다. 주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며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까지 비우는 세계입니다. 주님은 모든 삶을 깨뜨려 죄인을 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며 유다가 분을 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 다음에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기게 됩니다. 이 배반자의 마음, 생각의 뿌리를 잘 봐야 합니다. 그는 이 사랑의 행위를 낭비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똑해질 때, 심지어

는 낯설어지고 이 사람의 이야기는 어리석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 낭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비울 때, 분명 채워집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낮아지면 높임을 받게 되고, 죽으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보고 깨닫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귀한 것을 팔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

참 사랑의 주님, 품 수 없는 자를 품으시고 죄인에게 먼저 다가오신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유다와 같이 주님의 사랑의 세계를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사랑의 세계를 알아보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사랑은 거룩한 낭비임을 알게 하시고 비울 때 채워지고 낮아질 때 높아지고 죽을 때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세계를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건강상식

감정도 지나치면 병을 부른다

오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신적으로 상처가 깊고 아픈 경우가 많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신적인 고통이 크면 정신적인 문제가 신체의 병을 불러오기도 한다.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을 쉽게 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경우 업무 때문에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식욕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밥을 먹는다고 해도 소화불량에 걸리거나 탈이 날 수 있다.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분노할 때 급격히 혈압이 상승하거나 두통이 생길 수 있는 것도 감정의 변화가 신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방에서는 사람의 감정을 기쁨(喜), 성남(怒), 생각(思), 근심(憂), 슬픔(悲), 두려움(恐), 놀람(驚) 등 일곱 가지로 구분하며, 이 감정들이 모두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어느 한 감정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 감정과 연관된 장부가 손상되면서 병이 될 수 있을까?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좋은 감정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 기쁨은 심장과 관련이 있는데, 심장은 오장육부의 중심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중요하다. 적절한 기쁨은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심장이 상하게 된다. 이를 '희상심(喜傷心)'이라고 한다. 신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장의 열이 위로 올라가 얼굴을 붉게 만들고 혀를 바늘을 둘게 만든다. 생각(思)은 비장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생각이 지나치게 되면 식욕이 떨어지거나 소화불량에 걸리기 쉽다. '사상비(思傷脾)', 즉 생각이 비장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기혈의 순환이 둔화되면서 몸이

부른다. 화를 내면 간이 상한다는 뜻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숨이 가빠지거나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서 뺏.Configure지도 한다. 이는 손상된 간이 몸의 기혈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화가 나서 뜨거워진 간의 기운이 상승해 얼굴에 몰리면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거나 눈이 충혈되기도 한다. 두통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정신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기쁘고 즐거운 감정도 지나치면 병이 될 수 있을까?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좋은 감정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 기쁨은 심장과 관련이 있는데, 심장은 오장육부의 중심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중요하다. 적절한 기쁨은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심장이 상하게 된다. 이를 '희상심(喜傷心)'이라고 한다. 신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장의 열이 위로 올라가 얼굴을 붉게 만들고 혀를 바늘을 둘게 만든다. 생각(思)은 비장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생각이 지나치게 되면 식욕이 떨어지거나 소화불량에 걸리기 쉽다. '사상비(思傷脾)', 즉 생각이 비장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기혈의 순환이 둔화되면서 몸이

차가워진다. 손발은 차가운데 열이 얼굴에만 몰려 여드름을 비롯해 각종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곱 가지 감정 중 근심과 슬픔은 폐에 영향을 준다. 특히 폐는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장기라서 근심이나 슬픔으로 폐가 약해지면 피부가 상하게 된다. 또한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은 신장을 상하게 만든다. 일시적으로 잠깐 놀라게 되는 것은 괜찮으나 장시간 두려움이나 공포를 가지는 것은 신장의 기능을 손상시킨다. 특히 한의학에서 신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콩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식기자궁, 전립선, 생식선)와 내분비계통(갑상선, 부갑상선, 뇌하수체)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때문에 신장이 손상되면 생식기 관련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신장은 절음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장기이기 때문에 늙을수록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감정이 지나치게 되면 기미나 주름을 만들어 노화도 촉진하게 된다.

이처럼 일곱 가지 감정은 오장육부를 손상시키고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감정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김소형 한의학박사

오늘의 예화

행복과 불행의 차이

한 청년이 알프스 산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해간 물이 떨어져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알프스 계곡 사이에 있는 맑고 깨끗한 호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단숨에 물을 끌어꿀꺽 마셨습니다. 몹시 시원한 물이었습니다. 물을 실컷 마시고 발길을 돌리는 순간 그는 <포이즌(poison)>이라고 쓴 경고판을 보았습니다. 이 물속에 독이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청년의 몸에서는 열이 나기 시작했고, 그는 심한 구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몸이 떨리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게시판을 잘못 보았군요. 그것은 '포이즌(poison)'이라고 쓴 것이 아니고 '포이즌(poison): 낚시금지'이라고 쓴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성경을 가지고도 한 단어, 한 문장의 해석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는 행복과 불행의 차이입니다.

기쁨있는교회, 고재봉 목사

은혜 한 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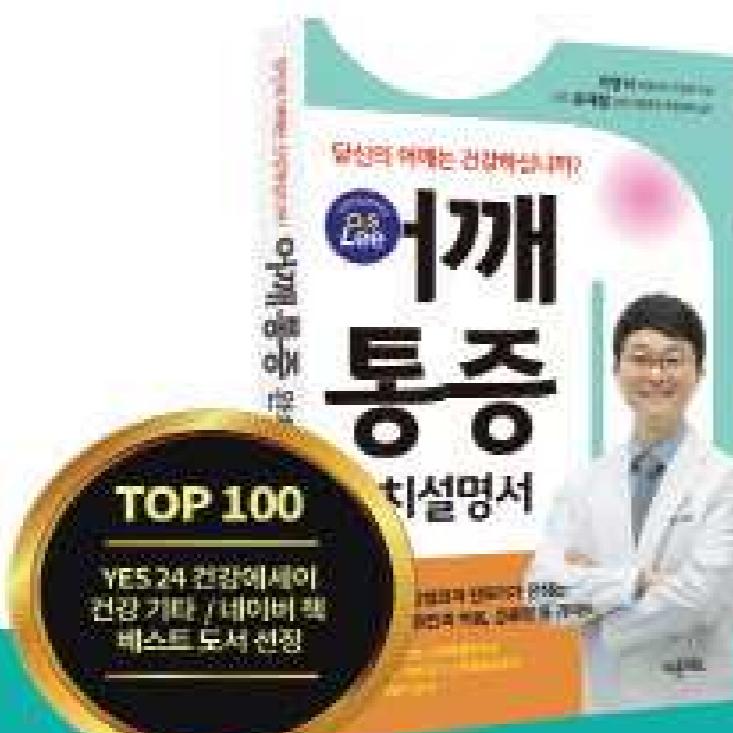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요한복음 3:16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화성건염·어깨흉터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명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피토처드

세기총, 2차로 마스크 7만 장 해외동포에게 전달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동포들에게 마스크 10만 장 및 손 소독제와 방역복 등을 보내기로 했던 바 있다. 이에 지난 23일 오전 세기총 회의실(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4호)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방역복 등 2차 전달식이 있었다.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세기총 마스크보내기운동본부장 황의준 목사가 마스크보내기운동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 보고하고, 7만장의 마스크를 세기총 대표회장에게 전달했다.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750만 해외동포들

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기를 소망하며 마스크 전달이 선교지와 해외동포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 수고와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께 인사의 말을 전한 후, 마스크 7만장을 선교사 대표로 참석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안태룡 선교사에게 전달했고, 대표로 마스크를 전달받은 안태룡 선교사의 감사 인사 순으로 마스크 전달식을 가졌다.

세기총은 지난 3일, 1차 3만 장의 마스크 전달식을 가진 바 있다. 1차 전달한 마스크는 세기총 후원이사이며, 국내 유일한 천환경 폐차장 “주(주)동강그린모터스” 최호 대표이사가 후원하였으며 라오스, 미얀마, 멕시코, 몽골, 인도네시아, 일

본, 캄보디아, 콜롬비아, 태국, 필리핀 등의 나라 15개 도시에 각 2,000매씩 전달하였다.

특히 세기총은 2차 7만 장의 마스크는 도움을 요청한 각국의 선교지와 해외동포들에게 전달하며, 해외동포들에게 지속적인 마스크보내기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2차 후원은 소강석 목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최순덕 목사(행복샘물교회), 세기총 상임회장, 오승환 교수(세기총 대외협력위원회), 조일래 목사(세기총 대표회장), 황의준 목사(세기총 5대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세기총 6대대표회장), 고시영 목사(세기총 법인이사장), 심평종 목사(세기총 수석상임회장), 성문

교회와 허승주 장로 등 여러 도움의 손길의 후원이 있었다.

세기총 마스크보내기운동에 동참하는

방법은 세기총 사무처로 마스크를 보내주거나 마스크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1매 500원 기준)을 후원하면 된다.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복 등의 물품은 (우편번호: 03129)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904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으로 보내면 된다.

또한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마스크 지원 요청의 절차는 간략한 선교지 소개서를 세기총 사무처로 보내면 된다”고 밝혔다. (T. 02-2232-6930)

전민수 기자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가 23일 2차 마스크 전달식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세기총 회의실에서 가졌다. ⓒ(사)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기장 전국장로연합회, 제39회 전국장로대회 개최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회장 전진권 장로, 이하 기장 장로회)가 주최한 제39회 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대회가 21~23일 강원도 홍천소노밸리파크에서 열렸다.

기장 장로회 측은 “이날 대회는 ‘우리가 교회되자’는 주제로 500여 명의 장로들이 참석하여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 지키기 지침을 이행하는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됐다”며 “코로나19로 행사개최 진행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행사진행위원회의 노력으로 개최됐다. 전국에서 각 노회별로 함께 모여 단체버스와 승용차 등



왼쪽부터 연합회회장 정진권 장로, 김영진 장로, 김경림 장로, 김근진 장로 ⓒ 기장 총회

의 교통편으로 대회장으로 이동하여 코로나19의 방역체계에 부응하여 도착하

였다.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발열 체크, 참여자기록, 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철저하게 이행하며 행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첫날 오후 3시 개회예배 후에는 특별 순서로 기장 부총회장을 역임한 김영진 장로(국회기념재단 31.1운동 UN 유네스코 등재 기념재단 이사장), 전 농림부 장관, 5선 국회의원)의 3남매 장로로 봉직을 축하하는 기념패 전달식도 있었다.

기장 장로회 관계자는 “선친의 독실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첫째, 김영진

장로, 둘째 김경림 장로, 셋째 김옥진 목사, 넷째 김근진 장로 등 결출한 신앙가계를 이룬 가정에게 3남매 장로 탄생을 축하하는 3형제 장로로 봉직 기념패를 전달했다”고 했다.

기념패 내용은 ‘3형제 장로의 가정을 이어옴으로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귀하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39회 전국장로대회에서 본 회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라고 한다.

노형구 기자

굿네이버스, 초등생들과 ‘제12회 희망편지쓰기대회’ 희망편지 전달식

굿네이버스 경기북부권나눔인성교육센터(센터장 박인용)는 지난 23일 고양 한류초등학교(학교장 이길우)와 함께 ‘제12회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는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영상을 통해 개발도상국 아동들의 어려운 현실을 돌아보고, 직접 ‘희망편지’를 작성하며 나눔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돋는 나눔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굿네이버스 경기북부권나눔인성교육센터는 3월부터 이달 31일까지 고양시 64개교 3만5천여 명을 포함하여 경기북부지역(파주, 구리, 남양주, 부천, 김포, 의정부, 양주, 포천 등) 323개교 21만여 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2회

으로 글을 쓰며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는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영상을 통해 개발도상국 아동들의 어려운 현실을 돌아보고, 직접 ‘희망편지’를 작성하며 나눔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돋는 나눔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굿네이버스 경기북부권나눔인성교육센터는 3월부터 이달 31일까지 고양시 64개교 3만5천여 명을 포함하여 경기북부지역(파주, 구리, 남양주, 부천, 김포, 의정부, 양주, 포천 등) 323개교 21만여 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2회

사진은 고양 한류초등학교 희망편지 전달식 사진. ⓒ 굿네이버스

버 ‘흔한남매’와 함께하는 이번 ‘희망톡톡 챌린지 시즌2’는 온라인페이지에서 ‘흔한남매’의 영상을 시청하고,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도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해시태그(#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 #희망톡톡챌린지)와 함께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에 올리면 된다.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은 학교, 온라인페이지(hope.gni.kr)를 통해 가족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고, 희망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전국대회 수상자에게는 해외 자원봉사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

전민수 기자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대사가 된 에이톤씨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증 모형 품보드를 들고 활하게 웃고 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날,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그는 “앞으로 제가 가진 음악적 재능을 통해 생명을 살리신 분들을 기억하고,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로하는 홍보대사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코로나19 속에서도 희망의 소식을 들려준 에이톤씨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뛰어난 재능으로 생명나눔의 주인공들을 기억하고 알리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에이톤은 2017년 발표된 길구봉 구 히트곡 ‘이 별을 작사, 작곡하며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백지영, 세븐틴 도겸 등 유명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을 해왔다. 최근 카카오M 산하 프로듀서 레이블 플렉스엠과 전속계약을 체결해 앞으로 다양한 방송 활동과 음반 활동을 통해 대중들을 만날 예정이다.” 전민수 기자

자연주의건강을 추구하는 www.sunesu.com

히포크라테스의 생애!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B.C. 460 ? ~ B.C. 377 ?) 경 의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히포크라테스!

서양의학의 선구자이며 고대의학을 집대성한 인물.

인체의 생리나 병리를 체액론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음식물을 당신의 의사 또는 약으로 삼으시오!

*한 생명은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 큰 삼동이 “어려운 친구들 돋기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재훈)은 배우 송일국과 세쌍둥이, 윤디자인그룹(대표 편석훈)이 재능기부로 참여한 ‘윤초록우산어린이 대한·민국·만세’ 희망 한글나무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체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으며, 올해는 특별히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삼동이 대한·민국·만세의 손글씨를 모티브로 대한민국 대표 글꼴디자인 회사인 윤디자인그룹의 전액 재능기부로 제작되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송일국 홍보대사와 함께 어린이체의 주인공인 대한·민국·만세가 깜짝 방문해 자리를 빛냈으며, 서체를 보며 신기해 했다는 후문이다.

1년여의 제작 기간을 거쳐 탄생한 삼동이체는 소액기부를 통해 서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희망한글나무 캠페인’을 통해 약 365명이 일시 후원에 동참하여 수익금 250여만 원이 모금되었으며,



뒷줄(좌부터) 윤디자인그룹 편석훈 대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송일국 홍보대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재훈 회장 앞줄(좌부터) 배우 송일국의 세 쌍둥이 대한, 민국, 만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후원금은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한편 ‘윤초록우산어린이 대한·민국·만세’ 서체는 개인기업 누구나 사용 가능 한 무료 서체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흠수 있다.

2020년 카도쉬 아카데미 제1회 여름 특별 세미나

회복의교회서 8월 17일

김민호·박광서 목사 강사

에는 박광서 목사(큰사랑교회)가 「막시즘의 변천과 교회 지도자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는 다음세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 세상 속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설립된 카도쉬 아카데미에서 내달 17일은 이슈들은 단순하지 않고 배후 사상과 함께 전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별히 한다. 오전에는 김민호 목사(회복의교회) 다음세대들의 공교육 현장과 둘러싼 환경들이 ‘젠더 아래올로기’에 무참히 미치고 있으며, 교회들도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교회들도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교회들에게 다음세대를 맡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미나의 주 대상은 사역자이며(목사, 사모, 전도사, 사신학생 등) 50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일반성도들의 문의가 많을 경우 따로 세미나를 추가 개설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당일 정원까지 여유 있을 경우 선착순으로 문의한 성도들에게 미리 연락을 하여 입장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CTS기독교TV·주다산교회 ‘교육선교 동역 협약식’ 체결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 이하 CTS)

와 주다산교회(담임 권순웅 목사)가 기독대안학교 설립을 위해 최근 주다산교

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김경철 회장은 “CTS는 다음세대를 세우는데 선도적인 중요한 사명을 맡았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다산교회에 기독대안학교를 세우는데 CTS가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 말했다.

협약식에 권순웅 목사는 “다음세대를 위한 선교적 접근 전략이 필요한 시대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독대안학교를 세우고 있으며, 교회들도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교회들도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교회들에게 다음세대를 맡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BS TV	CTS 기독교TV	CGN	GoodTV	Cchannel
5:00	00 TV 설교/할렐루야교회 김승옥 목사 30 TV 설교/100주년기념교회 정한조 목사	00 CTS 새벽예배-박은조 목사(온해설물교회) 30 생명의 말씀-이은정 목사(순복음진주초대교회)	00 생명의 삶 2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명성교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 30 말씀의센터 굽포제일교회 권태진목사	00 클래식 말씀의 창 - 박종순 원로목사 30 복음강단 -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
6:00	10 TV 설교/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	00 생명의 말씀-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30 생명의 말씀-홍한석 목사(대전하늘문화)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00 비전설교 중앙성결교회 한기재목사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비전설교 사랑을형제교회 권준목사	00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찬양하라 내 영혼아 50 노년당화
7:00	00 TV 설교/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50 TV 설교/소망교회 김경진 목사	00 CTS 뉴스 20 신앙에세이 30 생명의 말씀-김서택 목사(대구동부교회)	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40 하운조 목사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영어자막)	20 여주봉 목사의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길 50 말씀의센터 오륜교회 김은호목사	00 C채널 REPORT 플러스 30 다시보는 성자가 좋다 50 주의 빛 안에서
8:00	40 TV 설교/꿈의 강단	00 생명의 말씀-정의호 목사(용인기쁨의교회) 30 CTS 두란노 성경교실-최병락 목사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침운동)	20 말씀의센터 소명중앙교회 김대성목사 50 기도하는 노크토크	0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9:00	20 TV 설교/[만나의 말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00 내가 매일 기쁘게 30 삶이 변하는 시간 25분-김병삼 목사	0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40 [삶&가정] 그림으로 만나는 아이 마음	00 하늘카페	00 성자가 좋다 30 장학봉 목사의 통&특
10:00	10 TV 설교/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00 7000미리클-열방을 향하여 50 매일 무릎기도	2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암광교회)	00 김자현 목사의 성경강해 30 GOODTV 오늘의 예배	00 <오직주님> 명성의 위심
11:00	00 TV 설교/임석순 목사의 주일 아침 강단	00 [생방송] CTS 뉴스 50 어린이 친양 <우리 친양팀을 소개합니다> - 한 곡 감상하기	0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 경산중앙교회- 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팔리리	00 말씀의센터 소망교회 김경진목사 30 루터다이어리	00 힐링토크 회복 50 성찬의 소리 - 성찬교회 오일호 목사
12:00	00 TV 설교/꽃재교회 김성복 목사 30 TV 설교/순복음대학원대학교 한별 총장	00 CTS창사 25주년 기념 추억의 CTS 10 TV천상예배 Sing Sing Sing 30 생명의 말씀-김경재 목사(상남교회)	00 CGN 투데이 20 [말씀] 김경준 목사(동안교회)	00 말씀의센터 두란노서원교회 김상배 목사 30 일대이 양육모임	20 비전메시지 -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50 삶과 만나
13:00	00 TV 설교/영광교회 윤보환 감독 30 TV 설교/광민의 말씀-김정석 목사	00 생명의 말씀-이용우 목사(마산동부교회) 30 인 4색 김명현 박사의 성경과 과학	00 [말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40 김영우의 스윗시운즈	00 비전설교 하늘꿈교회 신용대목사 30 비전설교 기나인교회 정경덕목사	00 복음강단 - 영통영락교회 고홍식 목사 30 말씀의 창 - 명문교회 이덕진 목사
14:00	20 TV 설교/김양재 목사의 우리들말씀	00 [생방송] 콜링갓 50 #클립CCM	20 생명의 삶 40 [말씀] 박성민 목사(한국대학생선교회)	00 믿음의 여성 우리들교회 김양재목사	00 새에덴강단
15:00	00 올포원	00 7000미리클-열방을 향하여 50 신앙에세이	20 2019 창조신앙교육축제	00 하늘카페 50 코리아 가스펠	00 만나 워십
16:00	10 더 끌링 : 부르심의 소명 30 윤호균목사의 축복의통로	00 CTS 두란노 성경교실-제인호 목사 30 생명의 말씀-장경덕 목사(분당기나인교회)	00 예수님이 좋아요 30 [말씀] 류정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20 하늘양식 순복음참아름다운교회 안병찬목사 50 말씀의센터 행복한교회 조영구목사	00 C채널 REPORT 플러스 30 성자가 좋다
17:00	30 TV 설교/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00 생명의 말씀-전태식 목사(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50 별도로 소금으로	10 스티븐 엄의 예수님을 따릅니다 40 아무리 빠에도 가정예배 (삼천 편)	20 말씀의센터 오병이어교회 권영구목사 50 GOODTV 개시판	00 스페셜 힐링토크 회복 50 비전메시지 - 수원은혜교회 황우석 목사
18:00	00 TV 설교/오른쪽교회 김은호 목사 30 TV 설교/온누리비전교회 김동국 목사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30 인 4색 신은경 교수의 나의 나들이 인생 멋있게 사는 법	10 믿음의 고백, 찬송이 되다 2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00 행복 플러스 50 더 메시지	30 복음강단 - 양곡교회 이용수 목사
19:00	00 TV 설교/사에덴 교회 소강석 목사 50 CBS 교회소식	00 내가 매일 기쁘게 30 전국교회는 지금	00 [말씀] 최경욱 목사(또강사선교교회) 40 [삶&가정] 그림으로 만나는 아이 마음	00 세계테마기행 50 내 폰안의 교회	00 말씀의 창 - 대구은성교회 오세원 목사 30 스캇 브래너 목사의 다윗 시리즈
20:00	00 TV 설교/사랑의 말씀(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20 생명의 말씀-김정민 목사(금란교회)	2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00 말씀의센터 예수소망교회 관요설목사 30 말씀의센터 거룩한빛운정교회 유정상 목사	00 비전메시지 - 강남비전교회 한재우 목사 40 비전메시지 - The Life 지역총교회 김인환 목사
21:00	00 TV 설교/산정현 강당(산정현교회) 김관선 목사 30 TV 설교/강남중앙교회 정찬영 목사	00 김성혜 총장의 비전투데이 30 조셉 프린스 목사의 뉴크리에이션	00 CGN 투데이 2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40 저스트 텐 미닛 (유리브) 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저녁운동)	00 비전설교 송전교회 권준호목사 30 멘토링코리아 50 GOODTV 뉴스	10 C채널 가정예배 - 김기제 목사 30 클래식 말씀의 창 - 박종순 원로목사
22:00	00 TV 설교/신길교회 이기용 목사 30 TV 설교/주님의교회 김화수 목사	00 CTS 뉴스	00 친·인·교·복·기·원·기·행 3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0 노크토크	00 C채널 매거진 - 굿데이 30 비전 월드미션
23:00	00 CBS 금요질아예배/CBS금요질아예배 50 이음 목사의 성경맥걸(323강 - 출애굽기 12장 5~11절 월요일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 피의 능력	00 신앙에세이 00 7000미리클-열방을 향하여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미라클	1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10 이석목사의 명쾌통쾌	00 스페셜 힐링토크 회복 50 찬양하라 내 영혼아
24:00	40 TV 설교/광민교회 김한배 목사	00 끌링갓 50 어린이 친양 <우리 친양팀을 소개합니다> - 한 곡 감상하기	10 CGN 투데이 30 생명의 삶 50 창조신앙교육 컨퍼런스(세미나)	00 비전설교 사람살리는교회 라준석목사 30 비전설교 새로운교회 홍홍목사	00 만나 워십
1:00	10 TV 설교/민장기 목사의 그림설교	00 이태일의 I Love Jesus 30 교회행진! 나의 고백 10minutes 50 TETELESTAI 테렐레스타이 : 다 이루었다	3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 경산중앙교회- 50 나침반 바이블 - 김은호 교수	00 스킷브래너목사의 다윗시리즈 30 쥬얼리통일구국기도회	00 김학중 목사의 드림워십
2:00	0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20 삶이 변하는 시간 25분-김병삼 목사 50 #클립CCM	20 [말씀] 김형익 목사(벧살롬교회)	00 오 자유예!	0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3:00	00 새롭게 하소서	00 Let's Talk in English 20 매일 무릎기도 30 한국인이 좋아하는 찬송가	00 Global Sermon John Piper's The Bible 30 [말씀] 김현요 목사(벧엘교회)	00 주일예배실황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목사	00 김양재 목사의 공동체고백 50 리바이즈 워십
4:00	00 TV 설교/땅끝까지 복음을(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30 TV 설교/나눔교회 반성현 목사	00 TV천상예배 Sing Sing Sing 20 오늘의 양식 30 클래식 생명의말씀-박조준 목사	10 [말씀] 마크최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	00 홀리사우트워십 30 GOODTV 새벽예배 굽모닝 지저스 대한교회 윤영민목사	00 매일말씀 10 찬양하라 내 영혼아 2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 -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

KBS 개그맨 조래훈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인터뷰

개그맨 조래훈은 춘향의 도시 전북 남원시에서 태어나 2016년 KBS 3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개그콘서트에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골프 방송 진행도 하고 개인 방송도 하고 있다. 또 학교에서 강의도 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금 비록 화려한 경력을 쌓아가고 있으나 그의 어린 시절은 우울함으로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다. 그런 조래훈은 하나님께서 한 신실한 크리스천 선생님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도록 견쳐내셨다. 어둠에서 불러내 기이한 빛 가운데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라며 믿고 따르는 ‘개류비(개그맨 유튜버 줄임말)’ 조래훈을 만나 그의 승리의 신앙 이야기를 들어봤다.

-KBS 개그맨 조래훈 씨는 라디오 DJ, 대학 강사, 방송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공부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

‘엘르골프’ ‘이지골프’에서 골프방송 유튜브 MC를 맡아서 하고 있으며 개인 채널 ‘교회오빠 조래훈’이라는 채널을 개설해 재미있는 기독교 콘텐츠를 보여주며 유튜브 시대에 맞춰 개그맨 유튜버 ‘개류비’로 활동하고 있다. 고향 남원에서 남원시 흥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에서 연기과 석사 과정이라 논문 마무리를 하고 있고 박사 과정까지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데 주님 안에 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코로나가 처음 더웠을 때는 금방 끌 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는 뉴스를 접하고 하나님께 원망스럽게 기도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공연과 행사 그리고 사역까지 다 취소가 되고 심지어 애외 예능프로그램까지 취소가 됐다. 마음이 지치고 꿈을 향해가는 길이 막힌 거 같았다. 우리 같은 개그맨들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물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살아가기 힘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직업을 바꾸고 있다. 행사이벤트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사업을 접고 열김자 카메라 사업 등 코로나를 대비한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런데 고민하고 원망하고 앓아있을 시간이 없었다. 새롭게 살아가야 할 방법을 찾어야 했다. 고민할 시간도 아까웠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술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 KBS 개그맨 시험에도 빠르게 합격했다고 들었다. 기도가 남다른 것 같다. 원래 꿈이 뭐였나?

“원래는 목사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장경동 목사님 같은 재미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해군 연예병사로 입

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셨는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달라.

“초등학교 때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우울한 삶을 살았다. 게다가 공부가 적성에 안 맞아 힘들었다. 공부 못한다고 매일 혼나기만 하니까 더하기 싫어서 축구를 시작했다. 중학생까지 축구선수를 했다. 공부가 하기 싫어서 고등학교도 예술고로 진학했는데 연기를 배우면서 너무 행복했다. 신기하게도 1등 해서 장학금도 받았다. 사람은 다 자기 적성이 있는 것 같다(웃음)

초등학생 때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선생님이 있었다. 공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쇠자로 손등을 때리고 뺨도 때리고 기초 생활수급자인 나를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참피를 주기도 했다. 그런데, 중학교에 가서는 정반대의 선생님을 만났다. 내 인생 최대의 운명적 만남으로 지금의 내가 있게 하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선생님은 4대째 기독교를 이어온 집안이셨고 선생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다. 그 선생님께서 나에게 학교 축제 때 공부 못하는 나에게 사회 한번 보라고 권유하셨다. 그렇게 무대에서 ‘차례 쇼’를 하면서 사회를 보았는데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다. 비록 한 선생님께서 학대를 당했지만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 말고 이 길이 내 길이구나’를 처음 깨닫게 된 계기였다.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나에게 학생회장을 나가라고 하셨다. 학생회장 기준이 상위 15% 들어야 하는데 학칙을 바꾸면서 까지 나를 학생회장이 되게 해주셨다. 선생님의 도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예고를 갈 실력도 안 되고 재정도 안 되는데 진학할 수 있게 레슨비도 후원해주고 예고에 합격하고 나서는 정학재단에 편지를 보내서 장학금까지 받게 해주셨다. 대학 합격했을 때는 등록금, 입학금도 지원해주셨다.

선생님은 나에게 ‘래вин이에게는 아버지가 있지만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라고 말씀해주신 것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 하나님 이 나의 아버지라는 마음에 항상 ‘하나님 나 감사해요. 하나님 점심 드셨어요’하면서 항상 아빠처럼 대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리고 어릴 때 아버지의 빈자리로 이해 어머니가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도 어머니에게 웃음이 되는 아들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다. 그래서 웃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이 현실이 되어 감사하다.”

-조래훈 씨는 어떻게 신앙을 시작하셨

내가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은 어릴 때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힘들어했을 때 한 선생님 ‘래вин이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라고 말씀해 주시며 도움을 주신 덕분이다. 나는 중학교 1학년부터 매 순간 순간 길을 가도 혼자 있어도 운동을 해도 늘 학교, 교회, 집만 다니면서 하나님께 대화를 많이 했었다. 시골에서 할 게 없어서 매일 매일 교회에서 살았는데 심사가 보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맞았는 거 사주세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요?’ 등 등 정말 많이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연예인 되고 싶다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주택청약과 같은 거 같다 생각이 든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나보다 나를 잘 아셔서 기도의 때의 기도의 타이밍에 맞춰서 사람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어릴 때 풀립 노래 제목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복과 내용들이 하나님 마음에 청약과 같이 기도 응답 분양의 1순위로 해주시는 거 같다.

그리고 어릴 때 아버지의 빈자리로 이해 어머니가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도 어머니에게 웃음이 되는 아들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다. 그래서 웃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이 현실이 되어 감사하다.”

는 하나님을 알기에 신속히 무릎 끓고



부모의 이혼과 학업 부진으로 힘든 시기에서 크리스천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의 개그맨이 되었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개그맨 조래훈 씨

최근 코로나로 모든 행사 취소…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 생겨
초등생 때 부모님 이혼… 부진아로 선생님께 줄자로 맞기도 힘들어하는 어머니에게 웃음이 되는 아들이 되어야겠다 다짐

중학생 때 크리스천 선생님 통해 예체능에 적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
예고 예대 진학까지 지원 아끼지 않아 결국 KBS 개그맨 공채 합격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돌리는 삶 살고자

빠르게 회개하려고 하는 편이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행사가 끊겨서 걱정하며 하나님께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 해야 하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기도했는데 며칠 만에 골프 채널에서 연락이 와 MC를

맡게 되어 너무 놀랐다. 여러 프로님들에 게 무료로 골프 레슨까지 받게 되어 너무 감사히 진행하고 있다. 또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일하고 연락이 오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매일 살려주신다는 게 간증이 고 기적이다.

그리고, 신앙의 시작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목사님 딸과 권사님 딸이 전도를 해서 시작됐다. 외할머니께서 누나 두 명에게 래вин이를 교회로 데려오면 용돈을 주겠다고 해서 누나들이 나를 1년 동안 교회 나가게 하려고 잡으려 달렸다. 나는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더 이상 날 찾지 않는 것을 보며 허전해서 누나들을 찾아서 교회에 갔다. 그런데 교회 문을 여는 순간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내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듯한 체험이 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수련회를 가서 성령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됐다.”

-요즘 깊이 다가오거나 좋아하는 성구나 자주 듣는 찬양은 어떤 게 있나.

“교회 문 앞에서 앉은뱅이가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음과 금은 없지만, 오직 자신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 나도 내가 가장 밀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세상은 나를 위로해줄 수 없었지만, 오직 내게 있는 예수그리스도만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느끼며 살아왔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이다. 이 찬양도 역시 주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빛이 되어주시고 내가 시름시름 앓고 있어도 귀 기울여 주시고 있다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찬양이다.”

최근 기도 제목과 앞으로 계획은?

하루빨리 코로나 19 백신이 나오고 바이러스가 사라져 예술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이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또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라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하나님 자녀답게 안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혼내시기 전에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튼튼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기획사에 들어가려고 기도 중이다. 좋은 회사를 만나고 언택트 시대에 맞춰 유튜브도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더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부족하다. 매일 같이 나를 인도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좋겠다.”

조성호 기자

We care He heals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프지 않게 치료하는 주드림치과

그리스도 중심의 치과진료
환자중심의 포괄적 진료
얼굴전체의 조화를 꾀하는 진료
학문적 균형의 신뢰할 만한 진료

진료과목 및 특징
임플란트, 교정, 턱관절질환, 심미보철, 소아진료, 소아교정

국내 진료봉사 및 수납액 일정금액 한국컴퍼션 통한 어린이후원
해외선교사 및 목회자(기독포함), 선교단체 간사님 특별 할인혜택

예약문의 032-329-7582

www.judream.co.kr

We care He heals 주드림치과

이상수 원장 Profile

치의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보스톤대학교 임플란트과 Advanced course 수료
보스톤대학교 심미보철 Continuing Education course 수료
Dr. Donald Kitiz Memorial Institute(NYU) 보철 및 통합진료과정 수료
AIC Professional Implant Training course 수료
University of Pennsylvania Microendodontics course 수료
SM dental institute super GP course 수료

성민지 원장 Profile

치의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이대목동병원 일상교정과 석사과정 졸업
보스톤대학교 교정과 continuing education course 정시 수료
Dr. Donald Kitiz Memorial Institute(NYU) 교정 course 수료
일본 카나가와 치과대학 연계 JS dental institute 교정 Master course 수료

평일오전 9:30 ~ 오후 6:30 (화요일 야간진료 오전 10시~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00
매주 수요일 휴진(단, 공휴일이 있는 수요일은 정상진료), 일요일/공휴일은 휴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 3동 1058-2 중동프리자 203호
신중동역(7호선) 4번출구 3분 거리

+ We care He heals 주드림치과

sys 씨스팡

씨스팡과 함께하는 건강한 여름나기 이벤트!

2020.07.28~2020.08.03



**관절팔팔 3개월분 구매 시
비타D팔팔 2박스 증정**

**열관팔팔 3개월분(6박스) 구매 시
활력팔팔 2박스 증정**



비타민D
2000IU



활력
비타민B

관절팔팔 초록입홍합추출오일

✓ 7년 연속 생산실적 1위

(2012~2018 관절기능성 개별인정형 원료 중)

✓ 국내 최초 관절 기능성 개별인정형 원료

✓ 국내 7개 대학 병원 인체적용시험 결과

2달 섭취 후 90% 관절 건강 개선

(인체시험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관팔팔 특허받은 칸탈로프 멜론 SOD

✓ 2년 연속 국내매출 1위

(2017~2018 혈행개선 기능성 개별인정형 원료 중)

✓ 국내최초 식약처로부터 '혈관벽두께 증가 억제 기능성'

인정 받은 혈관관리제품

✓ 프랑스 국립예방의학센터에서 3년간의

인체적용시험으로 기능성 인정



주문 및 상담 1544-5388 (09:00~17:00 / 점심시간 12:30~13:30) | www.syspang.com